

東大新聞

발행처	인간간행	신조약	국	주한
주주	편집국	박	장	한
편집	국	신	장	한
발행	국	신	장	한

과 내 문: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100-715 서울시 중구 필동2가26 (2267-8577)
FAX (02)279-1270
780-714 경북 경주시 석장동707 (241-4132)
인쇄인 김영로

소속 해서는 안될 일 저질러 놓고 번뇌의 폭으로 답답해 하네 학한 일 했을 땐 즐겁고 복된 것 가는 곳 마다 부우침 없네. (法句經·지옥품 345절)

제1050호 (주간) 1994.1.1. 등록번호: 다-10 1995.10.13 제3종우편물(가)담인가 The Dongguk University Press 1990년(단기4323년)5월23일 (수요일) 【1】

구국의 신심 안고 4기 전대협 출범

지난19일 원천봉쇄속 전국서 3만여명 광주집결 故 이철규-이내창열사 영혼 의형제 결연식도

전국대학생대표자협의회(의장=송갑석·전남대 총학생회장)는 지난 19일 전남대에서 '광주항쟁 10주기계승 청년학도 전국대회' 및 '4기 출범식'을 갖고, 청년학도의 반미·반독재 조국통일투쟁으로 자주·민중·통일의 시대를 앞당길 것을 결의했다.

이날 전국대회 및 출범식은 전국 1백여개 대학 3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해 오전 6시 50분경부터 전남대 종합운동장에서 열렸다.

4백여명으로 구성된 풍물패의 길놀이 뒤를 이어 전대협(대전지역 대학생대표자협의회)을 선두로 각 지구대협 임직이 2시간여에 걸쳐 이루어지면서 시작된 이날 출범식은 제4기 전대협 부의장 송규현(경희대 총학생회장)의 사회로 전대협 4기 출범식 전포, 애국곡, 제3기 전대협 의장단 인사, 국민연립위원장 이수호씨의 축하말과 전노협 의장권한대행 김영대씨의 인사말로 이어졌다.

이날, 출범식이 한창 무르익은 오후 10시경 임수경영의 연인인 임유경씨가 전대협 4기 출범식을 축하하는 서한문을 대독하기도 했다.

다음으로 각 지구대협 의장들이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독재조종 미국반대' 등을 주장하며, 결의를 다졌다.

이날 출범식에서 제4기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은 부울총협(부산·울산지역 총학생회협의회)의장 박성현(부산대 총학생회장)과의 투쟁결의문 낭독에 앞서 인사말을 통해 "광주에서 전국으로 전대협 깃발이래 통일 단결하여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독재조종 미국반대 투쟁을 벌여 나가자"고 역설했다.

이어 부울총협의장 박성현군은 "광주에서 모이진 백만정년 학도의 구국투쟁은 광주를 딛고 5월을 넘어 전국적으로 전국민적으로 번져 올라가야 한다"고 전제하며 22일 미대사관 항의투쟁, 24일 "학살배우 공작정치 주범 미국 규탄과 노태우 매국방일 반대 투쟁에 참가하는 한편, 6월2일 국민연합에서 제기한 비상국회회의를 주동적으로 준비하고 범국민적 6월항쟁 서막을 올릴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출범식은 문화공연으로 다음날 오전 4시경 막을 내렸는데 출범식이 시작되자 전 전남도청의 출범식장 진입방향을 따라 정문과 후문에 각각 바리케이트를 치고, 5백여명의 사수대를 조직, 경찰의 난입에 대비하기도 했다.

"故 이철규-이내창열사 영혼 의형제 결연식"이 지난 19일 오전 11시 두 열사가족·조선대 열광으로 5일장을 치루기로 했다.

"민자당독재 분쇄 및 민중기 본권 쟁취를 위한 국민대의 광복을 위한 전대협 출범식"이 지난 20일 오후 3만여명의 학생들이 참석한 가운데 전남대 민주광장에서 열렸다.

출범식을 마친 학생들은 정문과 후문으로 각각 통과, 주먹가치를 통해 총장, 중앙로등에 집결, 도청진입투쟁을 시도했다. 경찰은 60개중대 7천8백여명의 병력을 동원, 도청 접근을 저지했으며 학생들은 보



살아있는 광주: 광주 금남로에서 지난 18일 오후5시부터 시민·학생·노동자들 10만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5·18 광주민중항쟁 10주년 기념식 및 5월항쟁 계승대회가 열려 10년전 광주의 모습을 재현했다.

'임석대동제' 폐막 광주 출정식 등도 가져

경주행정기구 설립2주년 5·18 10주년 기념 '임석대동제'가 지난 19일 오후3시 문무관에서 열린 박상연을 끝으로 나흘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9일 하루동안 각각 실시된다.

90학년도 정기감사를 서울, 경주행정기구 및 포항병원을 대상으로 오는 28일부터 내달9일까지 실시한다.

이번감사는 서울과 경주행정기구의 총무처, 교무처, 학생처를 비롯 총 40여개의 행정기구등을 감사의 대상으로 하며, 서울은 오는 28일부터 내달 1일 까지 5일간, 경주는 내달 7, 8일 양일간, 포항병원은 내달 9일 하루동안 각각 실시된다.

(관련기사 7면)

불을 당기자"고 주장했다.

지난 15일부터 일차별로 '부쟁의 날' '지주의 날' '민중의 날' '통일의 날' '민중해방의 날'이란 슬로건으로 교내일원에서 열린 이번 대동제는 5·18 광주항쟁 10주년을 맞아 광주항쟁영웅과 '오! 꿈의나라' 상영, 광주순례와 전대협4기 출범식참가를 위한 출정식등의 행사를 가졌다.

김진태군 치료비마련 모금사업등 진행활발

김진태(사학 3)군 실명간상 규명을 위해 지난 10일부터 전공수업의 전면보류를 단행했던 분과대 사학과비대위는 학사 일정지연을 이유로 지난 21일부터 수업정상화에 들어갔다.

사학과 비대위는 김군의 치료비마련을 위해 오늘(23일) 하루동안 디향관(2층)에서 일일집회를 개최하며 대동제 기간동안 주점을 개설한다.

또한 제6대 총학생회에서는 김군의 치료비마련을 위한 T셔츠를 제작, 오늘(23일)부터 판매한다.

한편, 김진태군 치료비를 위해 학교당국은 지난 21일 申國柱 총장 명의로 금일봉을 비대위에 전달했다.

사립학교법 재개정 촉구 교수회성명서 대학운영 자율성 요구

지난 3월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해 민교협등 각계에서 비판성명서가 발표되고 있는 가운데 본교 교수회(회장권한대행 金鍾奎·토목공학)는 오늘(23일)자로 사립학교법 재개정을 촉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교수회에서는 이번 성명서를 통해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제단의 교직원 임명권이 부여되고 교수제임용제 실시여부와 임용기간을 사립재단장에게 포함시킴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우려한다"고 표명하고, "국회의 정부는 개정사립학교법 재개정에 적극 임할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단대감사 계속지연
피감사주체 불참으로
서울캠퍼스 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심철선·사회3)주최 1·4분기 단대감사가 지난 19일 문과대에 대한 징계처분이후 불교대, 경상대가 각각 재감사를 받게 된다.

한편 이번 감사는 대부분의 단과대등 피감사주체 불참 및 감사자료미비등으로 원활한 감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경주 복지장학금 지급
총 72명에게 각 10만원씩

경기 복지장학금 적립과 자판기 신설및 보수기 인건비등을 제외한 7백20만원으로 마련됐다.

한편 나머지 3백79만원은 구내자판기 일부 수익금과 함께 2학기기에 과인원에 비례해 수혜자를 결정, 지도교수의 추천을

신상규·박영진군 레슬링 국가대표로

본교 레슬링부 신상규(체교4), 박영진(체교3)군이 '제11회 북경아시아대회 최종선발결 세제선수권 최종선발대회'에서 국가대표 선수로 각각 선발됐다.

반야 학과장이 최종결정후 장학학과에 통보해 지급하게 된다.

보수

不邪淫, 不妄語, 不飲酒의 다섯가지(五戒)를 들고 있다. 이것을 기존의 개인윤리의 차원이 아니라 사회적 맥락에서 해석해보면 중대한 의의를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不殺生: 이것은 단지 고기

五戒의 社會的인 意義

을 먹지말라는 것이 아니라, 전쟁과 폭력을 금하며, 적극적으로는 자신과 이웃에 대한 사랑과 봉사를 권장하는 것이다.

不偷盜: 이것은 정당한 노력이 없는 재물취득과 필요 이상의 재물축적을 금하며, 적극적으로는 그러한 재물을 공익을 위해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不邪淫: 性은 생명의 근원이자 축복일 수 있으나, 오

이런과 약물중독자들, 담배, 이로 인한 갖가지 범죄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다.

神佛이 아닌 불완전한 인간으로 이런 중추에 1백% 부합하기를 강요하는 것은 무리겠지만, 한결음씩이라도 이 기준에 다가가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이 사회의 많은 문제들도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해 본다.

李芝洙

교수동정

△사학(임학) = 오는 7월20일부터 8월16일까지 스웨덴, 노르웨이, 체코등 유럽국가와 일부 동구권국가에 임목종학 학술조사연구차 출국.

동대신문 40주년기념 / 동국정신 선양 기획광고 10

겨레를 위해 인류를 위해 이땅에 새역사를 창조하라

어느날
동쪽나라 동쪽언덕에
가장 일찍 일어난 仁者들이 모여

아낌없는 사랑, 욕심없는 꿈, 독선없는 논리를 만들어 그걸 나눠주고 언덕을 내려왔다.

그들은 빛을 뿌리고
발자취에선 향기가 났다.

社說

‘진태군 실명’계기로 ‘단결’노력해야

지난 9일 ‘민자당분쇄와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투쟁에 참석해 새로나백화점에서 써우던 김진태학우가 폭력경찰이 손 SY-44직경탄에 맞아 왼쪽눈을 실명하게 지금도 고려병원에 누워 피애폴를 삼키고 있다. 총학생회와 사학과학생회는 ‘김진태실명진상규명 및 노태우정권타도를 위한 비상대책위’를 구성하고 ‘김진태실명진상규명’과 ‘비상시국대책위원회’등을 추진했으나 이상의 활동이 갖는 미시적인 면을 지적하고 ‘김진태학우 실명규탄 및 책임자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로 개칭해 투쟁의 범위를 확대시켰다. 그러나 비대위의 명칭변경이 기대했던 열매들을 맺지는 못했다.

김진태학우가 다친지후 대책위원회에서 동맹휴업, 김진태군 치료비모금운동 및 서명운동, 홍보지원등을 제안하고 실천에 들어갔다. 이때 학생들의 관심은 어느정도 김진태군의 치료비면과 진상규명에만 머물렀을 뿐 아니라 김진태군의 노정권타도를 비대위의 명칭에 비해 유명무실한 데를 보였다.

경찰에서는 결코 직격탄을 쏘지 않았다고 변명하고 있지만 5월18일부터 20일사이 평주에서 보였던 그들의 만행(직격탄을 쏘고 공용버스터미널내에서 최후탄을 터뜨리며, 신장호근을 죽음으로 이끈 잔혹살인 등)은 이미 설득력을 잃고 있다.

학생들의 투쟁은 지금 민사소송이 제기되어 정부와 치료비배상차원에서 그칠 우려가 있다.

사학과에서는 여중, 총학, 학부위등과 연대해 치료비면만을 위한 T셔츠판매를 구상하고, 서명작업이나 모금활동을 전개하는 등 가장 활발한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학생들의 관심은 오히려 일반시민들보다 못하다. 민연추시국강연회때의 모금과 학내집회, 서명운동에서 이는 이미 명확하게 드러났다.

동약의 학우들은 결코 동지에 대한 관심이 사라졌거나 반민자당에 대한 투쟁의식을 잃지는 않았다. 그러나 5월9일의 국민대회 이후 공방전은 학우들의 관심을 흐트리려고 하고 있다. 즉 학생들은 광주총회·죽자총선에 대한 입장표명과 이에따른 비판·반비판의 잭박리속에서 쓰러진 김진태동지를 기억속에서 떨쳐버린 것이다.

학교측에 더이상 바랄때가 아니다. 대신 학생간부들은 사분오열된 모습들을 수습하고 대정부투쟁에 돌입해야 한다. 이란결월사의 죽음이 투쟁의 기폭제가 되었다듯이 5월총회와 반민자당투쟁을 목표로 펼쳐야 할 일일때만이 김진태군의 상처는 치유될 것이다.

부슬로건으로 ‘죽자총선’ 투쟁 필요

죽음을 불사한 울산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과 방성강아름모교과와 지구언론쟁취를 위해 펼쳐 일어났던 KDS 사원들의 투쟁이후 정국은 급속도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정세의 변화속에서 어떻게 대중투쟁을 진민화경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가라는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다. 현실적으로는 ‘죽자총선’과 ‘죽자총선비판, 노태우퇴진투쟁’이라는 대차보 논쟁으로 알려지고 있는 이 논쟁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본질적이고, 주체적인 대응방도로 귀결되고 있는것 같지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

우리는 4-3 보편선거와 울산투쟁, KBS 투쟁을 통해 현재의 노동운동이 약간의 정치적 공간만 마련된다면 즉각적으로 진출할 수 있는 수준과 상태를 확인할수 있었다. 이러한 상태에서 정치투쟁의 집중화와 대중행동화의 구체적대안 마련은 중요한 과제가 아닐수 없는 것이다. 객관적인 정세와 주체적 역량간의 관계에서 우리는 그 대안을 마련해야 하며 심각히 고민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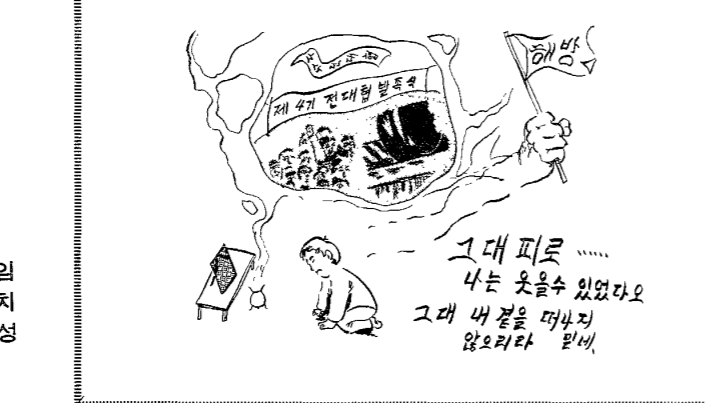
그럼에도 조직을 갖추고 대중운동을 구체적인 문제에서 출발해 전체의 통일된 문제로 높여나가는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현시기 우리의 대중운

동은 통일집중하여 전진행동을 기본축으로 하고, 평민, 민주, 민연추 등이 참여할 수 있는 총선투쟁을 보조축으로 하여 투쟁해야 하는 것이다. 현시기 총선투쟁을 통한 민주대연합이 노정권타도를 위한 광범한 세력의 참여를 확보하는 고리이며 민중운동은 이러한 낮은 차원에서 출발하여 투쟁을 집중시키게되는 것이다. 일각에서 제기되는 ‘소부르조아 정치주의’라는 비판은 현재 우리의 정치역량과 주객관적 정세속에서 오히려 투쟁을 분산시킬수 있다는 점에 좀더 대중적으로 고민되어야 할 것이다.

현시기 당면과제는 근거지투쟁을 정치적 이고 전국적 투쟁으로 끌어내고 그를 통해 민중의 통일전선적인 민주대연합을 건설해내는 것이다. 그속에서 노태우퇴진투쟁을 전국민적인 투쟁으로 확산시키고 앞으로 건설할 사회의 전망을 담는 강령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는 노동자, 농민, 학생들의 투쟁을 전국적으로 확산시킬 수 있는 고리는 ‘죽자총선’으로서 노태우퇴진투쟁과 다른 정치적 요구와 함께 부슬로건으로 제기해 투쟁속에서 집중을 시도하는 방향이 옳다고 본다.

東大漫評



임치성

온건파도 함께 외친 ‘해체 민자당’

1천 4백여 교수들의 시국성명서



金鏡轍 (사회대교수·국제정치학)



맞이하여 한반도에 평화·민주통일이 하루속히 자리잡게 되기를 국민대중은 간절히 기원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자당에 의한 반민주적이고 반민중적인 보수대야합이라는 시대역행적인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켰고, 가치관을 혼란시키고 있다는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교수들은 현정권타도의 중요성을 고발하고 우리 사회와 민족이 나아가길 바라는 국민에게 제시하고자 한 것이었다.

유착을 통해 이들의 물적지원을 더욱 공고한 기반으로 마련하고자 한 행위였으며, 끝으로 3명의 야합은 미국과 일본의 제국주의적 한반도 정책의 일환으로써 결국 한국민중의 참된 삶과 생존권을 억압하여 참교육을 저지하며, 가치관을 오도함으로써 국민모두를 국가권력에 예속시키는 기도라고 규정하고 있다.

더 나아가 이들 교수들은 지금 우리 사회는 퇴행상태이며, 국민은 배신과 불안과 그리고 불만등으로 분노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는 정치권력이 국민을 지속적으로 기만하고 가진자만을 위해서 정책을 펴왔기 때문이며, 현정권은 이점을 적시하여 국민과 역사앞에 사회화하여, 국민의 의견을 저버린 채 진행된 보수대야합

치권력은 더욱 파쇄, 반동화하고 있으며 급속심명제와 토지공개념의 유보조치로 경제적 민주화는 후퇴하고 있다. 또한 전·월세값의 폭등으로 서민들은 생사의 갈림길에 놓이게 되었으며, 더욱이 거대여당은 그들의 장기집권을 위해 내각제 개헌이라는 음모를 추진하고 있어, 이는 국민을 우롱하고 기만하는 처사임이 분명한 것이다.

이와같은 상황에서 나온 교수들의 성명서는 그 참가교수들의 숫자가 대학이 선인문 역사상 최대 규모라는 사실에서 뿐만 아니라 이른바 ‘총체적 난국’으로 규정되고 있는 현 상황의 근본원인은 민주변혁에 역행하는 민자당 출범에 있다고 천명하면서 민자당의 해체를 정면으로 주장하고 나섰다. 특히 성명서만이 상당한 강령성과 정치적 경향성이 강한 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학문적으로나 사회적인 입장에서나 상대적으로 은연하고 중도화되어 있었던 것은 교수학자들도 상당수 참여했다는 사실은 현 상황에 대한 학계 전반의 비판적 인식이 잘 나타나

대학가 선언문중 사상최대의 ‘양심선언’ 장기집권음모 분쇄위한 참스승의 출사표

이 성명에 따르면 민자당 출범의 구체적 성격을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첫째, 기록된 계층이 자기방어를 위해 꾸민 음모적인 야합이며 둘째, 현 정권이 파벌정치와 급진적 처를 통해 영구적으로 일당독재를 획책하고자한 노력이며 셋째, 민자당을 독재체벌과의

구상을 즉각 중단시키고 또한 민자당은 해체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들이 열망하고 기대하는 제반 민주화 조치들이 하루속히 성취되어야 하며, 민중의 생존권이 보장되고, 노동자와 농민 그리고 도시민들의 생존권요구 투쟁에 대한 탄압이 즉각 중단되어

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재 우리 사회에서 차지하고 있는 교수들의 역할을 생각해 볼때, 이번 교수들의 시국성명서의 발표는 우리의 현실과 사회에 대한 지성인으로서의 양심과 양식을 솔직하게 표현한 담양의 결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

‘밥다운 밥’ 언제쯤 먹게 되나 학교당국 직영화가 식사질개선 해결책

학우여러분은 보리고개란 말을 아십니까? 동약의 일반 학우가 이용하는 학생식당의 음식은 지금 바야흐로 보리고개를 향하여 한 발한발 나아가고 있습니다. 해마다 학생식당의 음식은 질이 떨어지더니 이제는 더이상 참고 먹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바로 식당관리자인 학교당국이 학생식당에 대한 관리와 투자를 하지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원칙적으로 학교부속시설인 식당에 대해서 학교는 관리비용을 부담하며, 교내나 교외에 사립대등 임대자가 운영하는 경우에도 전기료, 수도세등 운영비를 학교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 17일, 학부위에서 실시한 총문방식시회와 그 이후 계속하고 있는 직영학교(단국대, 중앙대, 한양대)와 우리학교의 점심식사 비교전시에서 눈으로 확인할 것처럼 우리학교 학생식당의 음식은 서울지역에서 가장 열악한 상태이며 더이상 참고 먹지 못할 지경입니다.

지금당장 식당문제는 해결되어야 합니다. 많은 대학이 식당을 직영하면서 수천만원씩 투자하고 있습니다. 학교당국은 식당의 정확한 운영실태를 파악하여 학우들에게 공개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도록 촉구합니다.

안현주 (야간강좌·회계학과)

동약 기자석

양심을 팔지 맙시다 부정행위 위해 구석 자리차지 ‘혈전’ 부정행위 근절 운동을 제안드립니다. 여러분은 부정행위를 몇 번 해보셨습니까? 그것은 부도덕해도 지성이 아니라 자처하는 우리들에게 이미 만연되어 있는 자기모순입니다. 동아리의 책임성, 벽 등에

여러분과 함께 하고자 합니다. 동약기자석은 여러분이 생활속에서 보고, 듣고, 느낀 것들을 언제나 귀 기울이고 있습니다. 교수·학생·직원 모든 동약인은 동약기자석의 주인입니다. (여름매체부)

주의에 눈이 먼 개인주의가 판치는 사회풍조가 우리를 휩쓸어 가는 듯 합니다. 지금은 냉철하게 생각할 시기입니다. 작은 일부터 우리 자신을 되찾아야 할 때가 아닐까요? 모쪼록, 이 미천한 투고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나마 고민하고 갈망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신근창 (사범대·교육학과)

제28회 「東大文學賞」 작품모집

東國의 문학적 전통을 계승, 발전시키고 내일의 한국문단을 주도해갈 참신한 文才를 발굴하기 위해 제정된 전국 대학생 대상 「東大文學賞」이 매년 그 품격을 높여가고 있습니다. 우리문학의 올바른 토양마련을 위한 이文學賞이 대학지성 여러분의 들끓는 문학적열에 힘입어 가장 권위 있는 大學文人 文學문으로 정착하기를 기대하며 다음과 같이 문학작품을 공모합니다.

◇모집분야
 시부문: 5편 이상
 小説부문: 60枚 내외(2백자 원고지)
 評論부문: 60枚 내외(2백자 원고지)

◇응모요령
 응모자격: 全國에 소재한 4년제대학 在學生
 제출기간: 1990년 9월24일~9월28일까지
 상: 시 부...본상 15만원, 장려상 10만원
 소설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평론부...본상 20만원, 장려상 15만원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당선작발표: 1990년 10월24일자 본지 紙上
 작품제출처: 100-715 서울 중구 필동3가 26번지 동국대학교 동대신문사
 ※작품결빙에 「東大文學賞」 응모작이라 朱書해 주십시오.
 ※제출작품은 일체 반환하지 않습니다.

동대신문사

제28회 학술상 논문모집

본교 학생들의 학구열을 고취하고 학문적 성과를 진작시키기 위해 제정, 매년 일천 수확을 거둬는 本社 學術賞이 올해로 28회째를 맞이했습니다. 이번 학술상에도 많은 동국인이 응모하여 동국의 學風을 더욱 빛내주시기 바랍니다.

◇모집분야
 人文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社會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自然科學賞: 본상 및 가작(본상 20만원, 가작 15만원)

◇응모요령
 원고매수: 人文·社會·自然科學 3개분야 모두 2백자 원고지 50매내외(단, 지도교수의 추천을 받은 소속학과 학술논문이어야함)

응모자격: 서울 및 경주캠퍼스 재학생(대학원생 제외)
 심사위원: 本社에서 위촉하며 입상작과 함께 발표
 논문제출: 10월8일~12일까지 본사에서 접수
 입상작발표: 10월24일자 本紙 紙上

동대신문사

앨범사진 촬영 안내

4학년 학우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제2대 졸업준비위원회에서는 앨범제작을 위해 세한스튜디오와 계약을 마치고, 다음과 같이 인물·단체사진 촬영일정을 확정하였사오니 적극 협조하시기 바랍니다.

1. 인물사진 촬영

5월 23일: 공과대(전자공학과·식품공학과 제외)
 24일: 공과대(식품공학과), 사회과학대
 25일: 경산대, 공과대(전자공학과)
 26일: 야간강좌(산업공학과·전자계산학과·경제학과)
 27일: 야간강좌(영문학과·회계학과·경영학과·무역학과)
 28일: 농과대, 문과대(국민윤리학과)
 29일: 문과대(국민윤리학과 제외)

9월 10일: 이과대, 법과대
 11일: 불교대, 예술대
 12일: 사범대

*인물사진 촬영시 각 과대표는 졸업준비위원회 사무실에 들러 촬영권을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2. 단체 사진 촬영

5월 23일: 경산대, 공과대(전자공학과)
 24일: 공과대(전자공학과·식품공학과 제외)
 25일: 공과대(식품공학과), 사회과학대
 26일: 야간강좌(영문학과·회계학과)
 27일: 야간강좌(경영학과·무역학과·경제학과·전자계산학과·산업공학과)
 28일: 문과대(국민윤리학과 제외)
 29일: 문과대(국민윤리학과), 농과대

9월 4일: 이과대, 법과대
 5일: 불교대, 예술대, 사범대(수학교육과)
 6일: 사범대(수학교육과 제외)

*기타 자세한 것은 졸업준비위원회로 문의 바랍니다.
 1990년 5월 일

제 2대 졸업준비위원회



한반도 평화정착, 자주적시각 가장 중요

는 방법론적 결합을 갖는 것이었다고 평가한다.

①경제적 측면(전세계경제론)

‘전세계경제론’으로 이름 붙여진 새로운 국제 경제론은 양대체제의 대립성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주요한 측면을 상호의존성에서 찾고 있다. 과학기술혁명에서 국가간의 경제관계는 과거의 어느 시기에 서보다 급속히 발전하고 국제분업이 분화되고 경제생활의 국제화가 새로운 형태들에 의해 풍부해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전세계적인 경제 체제 결합에 포함되지 않는 국가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으며 무역·금융·기술 및 생산·협업관계와 상호의존이라는 복잡한 그물에 깊게 편성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다.

따라서 세계경제의 통일성을 규정하는 법칙을 발견해야만 하는데 시시코프는 이를 △생산의 국제적 사회화 수준이 높아가는 법칙(세계 경제 내부의 상호연관성이 증대) △국민국제의 세계경제의 통합경향 △세계경제적 결합의 계획적 발전의 객관적 필요가 높아지는 법칙 등을 잠정적으로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전세계경제론이 이론적으로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러나 전세계경제를 지배하는 경제법칙들이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점에서 기인하는 실용주의적 해석의 가능성이다. 최근 사회주의의 급속한 경제개혁의 필요로 인해 서구자본주의 또는 일부 신흥공업국과의 협력 등 경제협력의 일방적 강조와 접근은 전세계경제내의 모순의 발전에 대한 인식과 결합되지 못할 때 실용주의적 한계를 벗어나기 힘들 것이다.

②새로운 사고와 평화공존

전세계경제의 상호의존성과 통일성은 현대세계의 정치군사적 상호의존성을 필연화한다. 양대체제의 적대적 대립(가 주요한 원인은 군국주의적 제국주의이다)의 결과로 나타난 인류생존의 문제는 정치군사적 측면의 상호의존성을 강화한다. 즉 인류문명경제의 위기를(핵, 환경문제, 제3세계의 빈곤) 해결하는 것은 노동자계급의 독자적 이익에 우선하는 사회발전의 이익이며, 따라서 노동자계급의 이익도 사회발전의 이익실현과 분리될 수 없다.

이러한 새로운 사고는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을 강조함으로써 가치

의 공통의 이해(전인류적 가치)에 기초해 평화적 상호안정보장과 발전적 협력을 도모함으로써 국제관계에서의 침략주의적 요소를 제거하는 것을 주요한 방법으로 보는 점 등이다.

II. 새로운 사고와 제 3세계

새로운 사고의 발전도상국에 대한 관점은 매우 큰 논쟁점들을 포함하고 있다. 즉 현대의 제국주의를 20C초중반의 제국주의와 다르게 파악할 수 있는가의 쟁점(베닌의 제국주의론을 오늘의 자본주의에 그대로 적용할 수 없다는 점을 시사하는), 선진자본주의 사회는 물론 자본주의 지향의 발전도상국들에 혁명과정의 발전이 과연 지체되고 장기화되고 있는가, 만일 그렇다면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는가와 관련된 쟁점, 발전도상국에서도 평화적 이행이 주요한 이

율했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현재 친소혁명정권이나 친공공산주의 세력이 차지하는 현실의 위기는 그 이전의 노선이 수행된다 하더라도 결코 밝은 전망을 주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오히려 이전 노선의 고수 회기는 단기적 위기는 모면할 수 있을지 몰라도 소련을 비롯한 국제공산주의운동의 급속한 퇴락 속에서 더 큰 위기를 배태한다

현실은 그들에게 새로운 것을 요구하고 있다. 현재 새로운 사고의 제3세계 정책이 89년 이전보다 어려움에 봉착해 있는 중요한 요인은 세력간의 힘의 균형(상대적 이익에 대한 인식)이 예상상으로 빨리 허물어지고 있다는 점이다. 힘의 균형이 유지될 때 발전도상국에 대한 개입을 서로 약화시킬 수 있는 것인데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급격한 변혁이 휘말린 동구권 사태다. 소련내부의 위기는 이러한 균형을 훼손시

켰다. 그러나 아시아 지역은 유럽과 달리 이러한 집단안보체제를 구축하는 데에는 이 지역 각국의 역사·사회적 이질성, 종교 문제, 한반도 문제, 캄보디아 문제 등 지역분쟁의 미해결, 미국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의 압도적 우위, 소련의 일소관계 등 곤란한 점이 많이 존재한다. 한반도 문제의 접근방식에서 소련은 ‘이익의 균형’이라는 원칙을 적용하고자 한다. 이때 인식의 출발점이 되는 것은 한반도 남북에 ‘급속히 발전하는 경제적 유기체가 실제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전의 한반도 문제가 군사전략적 인식의 틀 안에서 한반도 문제의 정치적 해결을 통한 관련 당사국들의 상호이익을 도모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 한반도의 극도의 군사적 대립을 완화하고 주어진 현실로부터 출발하여 한반도 상황을 안정화하고 민주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련은 공동의 이익에

서독같은 강대국으로 바라보고 이 부분이 아시아의 나토화를 막고 소련의 경제개혁에 유리한 협력사를 얻는 것으로 파악한다)를 확대하고 동아시아 경제구조에 소련이 참여한다는 점에서 상당히 적극성을 띠고 있다.

소련은 현재 기본적으로 한반도의 안정화와 평화정착에 기여한다면 교차승인을 수용할 의사를 보이고 있다. 이 교차승인에 대해 북한이 아직 반대하고 있고 미국이 북한에 대해 고압적 태도를 취하고 있기 때문에(미국은 소련의 아태지역 집단안보체제 구상을 거부하고 한반도 문제에 대해 주변미국의 부분적 철수를 명분으로 북한에 대해 일방적 신뢰상성 조치 및 개방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소-남한과의 관계개선과 미-북한과의 관계개선에 연동하지 않겠다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다. 결국 미국의 중대기 목표는 남한의 단독 유엔가입실현을 통해 한반도 전체에서의 미-남한의 주도권 장악이 목표이다. 자칫 잘못하면 교차승인이 아닌 한-소간의 수교, 남한의 단독유엔가입으로 귀결될 가능성이 높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소련의 한반도 정책이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기여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으나 이것이 실질적 평화정착을 지지부진한 채로 미국과 남한간의 주도권 강화와 분단현황의 고착화로 귀결될 것인지 실질적인 평화정착 및 남북한의 민주화와 통일에 기여하게 될지는 속단하기 어렵다.

다만 결정적 변수는 남한에서의 평화와 통일을 지향하는 범민주세력이 얼마나 정치력을 행사할 수 있는가와 북한의 변화 수준과 속도 및 방식에 달려있다.

김진만
(지유기과)

용어해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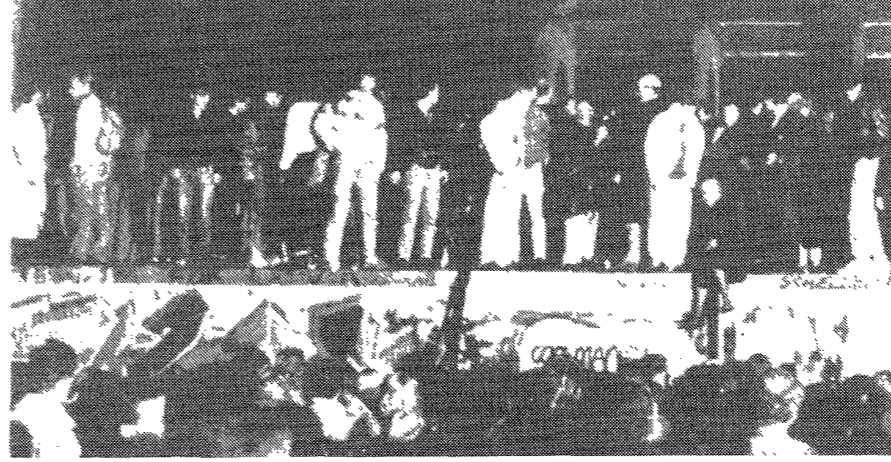
전인류적 가치

인류가 자멸할 수도 있는 현실적인 위협의 발생, 환경문제와 기타 전지구적인 문제의 극단적 침투는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과 긴급한 파자로 제기하지 않을 수 없게 했다. 실제정치에서 전인류적 가치의 우선이라는 명제를 전면에 내세우게 된 것은 노동자계급과 모든 민족해방투쟁의 이론과 실천에서의 일대전환으로 현대 제국주의 문제와 관련한 중요한 쟁점의 하나로 부상했다.

새로운 정치적 사고

일반적으로 새로운 정치적 사고란 국제문제에 대한 하나의 접근방식의 표현이다. 이 접근방법에서는 협조적이 아닌 대립적, 국가적 이익의 보장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고 계급적 모순이나 기타 모순으로 분류되어 있는 인류가 공동의 운명권에 의해 결합되며 하나의 문명권에 하나의 욕망에 살고 있다는 객관적 사실을 우선적으로 고려한다.

- ◇ 글썬는 차례
- 1. 페테스트로리카 총론
- 2. 경제개혁의 쟁점과 논리
- 3. 정치개혁의 쟁점과 논리
- 4. 평화공존론의 쟁점과 논리
- 5. 자주적인 대응전략



△ 20세기의 최후의 30년으로 불리는 1960년대 이후의 동구권 사회주의 운동의 열거는 이 사진에서 볼 수 있다.

평화공존론, 전인류적 가치우선에 기반해 UN 동시가입등 분단고착화의 방관은 안될말

따라서 전반적 위기에 대한 이론은 자본주의 생산력 발전의 한계를 관념적으로 미리 설정하는 이론(단테발로 자본주의 체제의 붕괴에 접근하여 혁명적 정세론으로 귀결되는)으로 되어서는 안되며, 사회주의 체계의 생산력 발전의 우월성을 선형적으로 강변하는 이론이 되어도 안된다는 것이다.

현대의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자본주의 최고, 최후의 단계에도 불구하고 생산력을 충분히 발전시킬 수 있는 전제조건을 창출할 경우 유지될 수 있으며, 과학기술혁명의 조건하에서 현대 국가독점자본주의는 장기적 발전의 과정에 위치할 것으로 파악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대전 이후의 전인류적 이익을 증진시키는 것은 정당하다. 실제로 과학기술혁명을 현대 생산의 성격과 계급구조, 나아가 국제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분석들에 의해 제국주의의 진영론과 모순론 및 이행들을 전개하는 것은 도그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오늘날의 과학기술혁명과 생산의 국제화라는 조건에서 양대 경제체제의 상호작용을 각각의 생산의 독자성위에서 전개하는 상공시장 관계에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격과 발전경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극대적인 생산관계의 상호침투가 가져오는 경제적·정치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려

로 읊어나는 문제는 심오한 이론과 현실 세계경제에 대한 체계적 인식의 필요요하다.

과학혁명의 문제의식을 소개하면 첫째, 과학기술혁명을 현대사회발전의 주요한 동인으로 파악하고 그것이 가져오는 생활일반에서의 효과와 영향력 한 것은 정당하다. 실제로 과학기술혁명을 현대 생산의 성격과 계급구조, 나아가 국제경제관계에 미친 영향을 구체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기존의 분석들에 의해 제국주의의 진영론과 모순론 및 이행들을 전개하는 것은 도그마리즘에 빠질 수 밖에 없다. 둘째는 오늘날의 과학기술혁명과 생산의 국제화라는 조건에서 양대 경제체제의 상호작용을 각각의 생산의 독자성위에서 전개하는 상공시장 관계에만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다. 따라서 이러한 상호작용의 성격과 발전경향을 연구해야 할 필요성은 대단히 높아지고 있다. 특히 극대적인 생산관계의 상호침투가 가져오는 경제적·정치적 영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고려

관을 노동자계급이익에 대치시키려는 것이 아니며 전인류적이고 전지구적인 문제에 대한 참예한 이해, 혁명적 노동운동이 자본주의 국가의 대부분 주민을 반독점투쟁에 끌어들이는 시기까지 이 문제의 해결을 미룰 수 없다는 사실에 대한 이해로부터 출발한다.

‘새로운 사고의 평화공존론과 기존 평화공존론의 기본적 차이는 무엇보다 스탈린시대의 평화공존론이 제국주의간 전쟁불가피론에 입각한 사회주의 건설과 이행의 일시적 조건 확보라는 데 두어졌고, 호무시초프 이후의 평화공존론이 사회주의 발전의 우위성에 기초한 체제합력수단으로서 계급투쟁의 일방적 태도 평화공존이 위치되어 있다면, 새로운 사고에 의한 평화공존론은 양대체제의 장기적 공존의 현실성과 전인류생존의 생존위기의 교묘이라는 동시적 조건하에서 체제간의 관계뿐만 아니라 모든 국가간의 관계에서 이데올로기 계급투쟁의 성격을 제거하고 인류 및 각 민족계급집

행행태양가 하는 쟁점, 종속자본주의에서의 종속의 성격은 무엇인가 하는 쟁점이 포함한다.

새로운 사고의 제3세계 정책은 세계질서의 다극과 경향 속에서 소련의 역할을 평화공존의 세계질서 창출에 한정하는 것이며 그를 통해 미국이 상실한 지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89년 동구권이후 미국은 중미에 대한 개입주의 강화와 사회주의권의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합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양대 강국의 힘의 쇠퇴는 현재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소련의 제3세계 정책이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즉각적으로 혁명세력에게는 그 이전의 정책이

미국이 개입주의에 대한 소련의 통제를 힘들게 하는 상황을 조성하고 있다. 86년 이후 소련의 영향력이 미지는 것에서는 분명히 해소되고 동 등평화정책의 성과로 거두지만 이에 대응하는 만큼 지역분쟁에서 미국이 상실한 지도력을 보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89년 동구권이후 미국은 중미에 대한 개입주의 강화와 사회주의권의 자본주의로의 흡수 통합을 노리고 있다. 이렇게 양대 강국의 힘의 쇠퇴는 현재 불균등하게 진행되고 있다.

III. 아시아 태평양정책과 한반도정책

소련은 86년 블라디보스톡 선언과 88년 크라스노야르스크 선언을 통해 아태지역도 유럽과 같이 긴장완화와 상호의존의 메카니즘이 확립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통해 이 지역의 여러나라들이 이익의 최적균형을 찾아 그것을 전인류적 이익과 합칠 수 있게 한다는

및이어 조정할 수 있는 국제적 메카니즘 창출방안을 갖는다. 물론 남-북간의 직접대화가 병행되어야 하지만 그와 동시에 소련, 미국, 일본, 중국과 남북한이 한반도에 관련된 자들의 이익을 조정하면서 실질적인 한반도에서 평화정착과 통일을 가능케할 조건을 창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현재까지는 소련과, 소일관계의 발전수준에 의해 큰 호응을 얻고 있지 못하다. 또한 소련의 가장 가까운 동맹국인 북한은 3차회담을 요구하는 실정이고, 다국간 협의가 자칫하면 한반도에서 두개의 국가를 고착화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판단하에 동의하고 있지 않다.

이런 조건에서 소련은 남북간의 경제협력(중위수준의 기술과 우수한 노동력을 갖는 남한) 등 관계개선에 우선 수락했는데 이는 소련의 경제개혁에도 유리한 뿐 아니라 일본과의 경제협력(소련은 일본이 미국의 단순한 하위 동맹자가 아닌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관한 우리의 견해

우리 동국대학교 교수일동은 최근 개정된 사립학교법의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집약된 견해를 천명하는 바이다.

우리는 동 법의 개정은 私學 특히 大學教育의 향상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는 의견을 같이 한다. 사학설립자 친인척의 이사회 참여의 길이 넓어지고 총학창취임이 가능케 됨으로써 사학의 공공성이 훼손될 것이며, 재단에 교직원임명권이 부여되고 교수제 임용제 실시여부에 임용기간을 사립재단정관에 위임할 수 있게 함으로써 대학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위축될 것임을 우려한다.

물론 사회전반의 민주화와 개혁을 성원하는 우리로서 동 법의 개정을 통하여 정부의 사학에 대한 통제가 완화되었음을 간과하지는 않는다. 다만 아직도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사학재단의 자주성은 크게 양양된 반면 사학교육의 그것은 그만큼 위축된 것에 유념하는 것이다. 1981년 동 법의 개정당시 사학재단들에게 씌워졌던 ‘무능과 부정’의 불명예가 완전히 벗겨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국회와 정부는 현재 국민교육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있는 사학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학의 구성원들 뿐만 아니라 많은 뜻있는 사람들의 개정된 사립학교법에 대한 거부감을 정확히 파악하여 재개정에 임할 것을 촉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사학재단들이 잘못된 법을 추호라도 악용하려해서는 안될 것임을 강조해두는 바이다.

동국대학교 교수회

'90학년도 계절학기 운영계획

1. 목적

계절수업을 효율적으로 개설운영함으로써, 성적이 부진한 학생의 재수강기회 및 성적이 우수한 학생에 게 조기졸업의 기회를 부여하고 학생들의 이학신허를 높이며, 서울과 경주캠퍼스간의 학적 교류를 통하여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를 도모하고자 함.
2. 개설대상 교과목
 - 가. 학점인정과목: '90학년도 1, 2학기 전교과목(단, 교육실습, 현장실습 제외)
 - 나. 학점비인정과목: 외국어회화, 영어회화, 특이회화, 특이회화, 중국어회화(경주캠퍼스 개설)
3. 수업인정
 - 가. 학점인정과목: '90. 6. 25(월) ~ '90. 7. 16(월) 16일간 예정
 - 나. 학점비인정과목: '90. 6. 25(월) ~ '90. 7. 23(월) 20일간 예정
4. 개설기준 인원
 - 가. 학점인정과목: 10명 이상
 - 나. 학점비인정과목: 30명 이상
5. 수강자격 및 신청방법
 - 가. 수강자격
 - ① 조기졸업희망자
 - ② 이수강자(해당과목 과목(F)자)
 - ③ 서울캠퍼스와 경주캠퍼스간의 학적교류 희망자
 - 나. 신청일정: 희망자
 - 다. 신청방법: 신청학생은 6학점을 초과할 수 없다.
6. 성적처리
 - 가. 재수강과목의 성적은 최고 "B"로 평가한다.
 - 나. 조기졸업희망자 및 일반학생의 성적은 최고 "A"로 평가한다.
 - 다. 외국어회화 과목은 성적에 반영하지 않는다.
 - 라. 단, 계절학기에서 취득한 성적은 졸업학점에만 포함하며, 장학생활 및 학사징계에는 무관함.
 - 마. (과목)확정에 대하여는 학적부에 등재하지 않는다.
7. 담당부서
 - 가. 학점인정과목: ① 담당자 결정...해당대학
 - ② 운영...교무부
 - 나. 학점비인정과목: 외국어교육원에서 운영
8. 수강신청
 - 가. 수강신청 기간: '90. 5. 22(화) ~ 5. 25(금) 4일간
 - 나. 수강신청교과목 접수
 - ① 서울캠퍼스: 교무처 교무부(2부대학 학생은 2부대학교과목과 신청)
 - ② 경주캠퍼스: 경주캠퍼스 교무부
 - ③ 외국어회화 과목 수강희망자는 외국어교육원으로 신청
 - 다. 수강료
 - ① 학점인정과목: 1학점당 35,000원
 - ② 학점비인정과목: 각 과목당 17,000원
9. 개설과목 확정발표: '90. 6. 1(금)
10. 수강신청변경 허가: '90. 6. 4(월) ~ 6. 5(화) 2일간
11. 수업시간표 발표: '90. 6. 12(화) 예정

교무처장

'해체민자' '미국반대' 합성으로 물결

19일과 20일 광주민중항쟁 10돌을 맞는 '해체민자'에서는 전대협 소속 3만여명 학생들의 지친 줄 모르는 민자당 해체/노태우 퇴진/독재조종 미국반대의 합성이 물결쳤다.

투쟁선자

○이른 새벽에 내리던 장대비가 맞던 19일 이른 아침 전남대, 18일경부터 속속 모여든 학생들은 각 지구대별 별로 교내에서 선전전을 갖는 등 분주한 모습. 오전 11시 오월영령들의 숨결이 들리는 듯한 신선한 바람이 부는 가운데 1955년 여명이 전남대 민주광장에 모여 전대협 4기 출범식 사수를 결의.

○오후 2시부터 전대협 4기 출범식이 있게 될 전남대 종합운동장과 그 주변을 노태우, 정몽헌 등이 리허설 준비에 분주. "이러다가 23일까지 출범식 해야겠어"라며 사회자의 농담이 마크 코멘트도.

○출범식이 있던 당일에 전남대에는 교내와 도로 곳곳에 이철규·이내창영사 관련사진들과 대자보가 붙어 많은 학생들과 시민들의 눈길을 끌기도.

○계속되는 가두시위에 부상자가 속출하자 광주 의보연맹이 열혈대학생 20여명은 제2학생회관 앞에 천막으로 임시보건소를 설치하고 학생들에게 구급약을 지급하고 부상을 치료해 주는 모습도 보여.

○출범식 예정시간이 다가오며 전남대에는 긴장감이 감돌아. 빨간 리피대를 걸고 동여맨 '해방대' 4백여명이 학교내 이곳저곳을 다니며 경찰관을 부르는가 하면 '절사정권 입건부패'의 구호를 외치며 화염병을 정문과 중문쪽으로 나르기도.

○전남대 정문앞 5백m 전방에는 페퍼포그 2대와 전경차 2대가 배치되어 있었고 학생들은 정문 앞 50m 지점에 타이어와 석유부탄 나무, 못박힌 판자등을 쌓아 바리케이트를 치며 경찰을 다짐. 한편, 후문에서는 학생들이 철조망을 쳐 놓고 그 뒤에 의자를 쌓아 두기도 해.

○사수선봉대 일명 '해방대' 대원들은 경찰이 난입하더라도 결코 밖으로 나가지 말고 정문과 후문을 지킨다는 전술을 세워.

○출범식 전 상황과 관련, 한 학생은 "지금 이곳이 마치 백치산들의 훈련소 같다"고 말했다는 식 사시간의 질서정연함, 조직적으로 움직이는 모습에서 이렇듯 파격이 없었음을 느끼게 해.

○한편 20일 오전의 조선대에서 있던 '이철규·이내창영사 영혼의 형제 결연식' 사진행사로 중대급 공인중 이철규영사 고문정권이 재연되자 이철규영사 어머니 황정자씨가 공인중에 뛰어들며 오열. 대부분 학생들의 눈시울을 붉히기도.

제4기 전대협 출범식

○남대협을 마지막으로 종합운동장이 학생들로 꽂 차자 출범식 분위기는 서서히 열기를 더하는 한

제4기 전대협 출범식 취재낙수



◇학생들이 열렬히 호응하는 광주시민의 모습은 과연 광주가 '성지'임을 알렸다.

경찰학내진입포기에 승리의 환호성 시민 빵·우유 등 나눠주며 학생 격려

문 운동장주위의 약 5천여명의 시민들은 '해체 민자당, 퇴진 노태우, 독재조종 미국반대' 등을 외치고 민중가요를 어설프지만 우렁차게 불렀다.

○전대협 의장단 및 각 지구대별 의장과 깃발 입장이 있기 전인 8시 20분경 사회자가 '전남도당이 기자회견을 통해 학생들의 자극을 우려, 교내 병력부임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는 내용의 속보를 전하자 일제히 외친 승리의 환호성이 하늘을 가르기도.

○전대협 3기 이인사 순서에서는 임중석 3기 의장의 4기 발족을 축하하는 내용의 육성테이프를 방송. 분위기는 한껏 고조시켜.

○임원중 구속·수감자가 한사 람도 없는 전대협 3기 의장단 및 각 지구대별 의장들은 이인사가 끝난 후 여학생들로부터 꽃다발을 받기도.

○이수경 평창대표의 서한문 대독이 끝난후 사회자의 선창으로 참석 학생들이 손에손에 리미터를 켜고 좌우로 흔들며 '지금은 우리가 만나서라는 노래를 불러 잠시 석장 분위기를 숙연.

해 골목으로 빠져나가 "2시 도청 해체 민자당"을 외치며 시민들이 나와 박수를 치는 가 하면 손목을 잡아주기도.

○광주시내 곳곳에는 신장호군 사망과 관련, 각 단체 대자보가 곳곳에 눈에 띄어.

일부 시민은 아르무트와 우유를 나눠주며 학생들을 격려했다.

○도청으로 향하던 학생들에게 마스코트를 쥐어 주며 격려하는 할머니가 있어 학생들의 시기를 한껏

고조시켜주는 호뜻한 광경을 연출.

(특취취재반)

이진형 기자
유권준 기자
김영란 기자
차옥경 기자

전대협출범선언 '민주정치실현' 역설 신장호군 죽음, 노정권의 간접살인

기사회견

지난 5월 19일 오전 9시 전남대 제 2학생회관에 임시로 마련된 프레스 센터에서는 내외신기자, 대학신문 기자가 운집한 가운데 기자회견을 가졌다.

송갑석 신임의장은 출범선언문을 통해 "전대협 백만 청년학도는 친 미파쇼야당 민자당의 장기집권, 영구분단 음모를 저지하고 노태우정권을 퇴진시켜 민주생존권 쟁취와 민주정치 실현을 최우선적 과제로 하여 총력 투쟁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또, "1천개와 방북교류 신청 등 전방면 자유왕래 운동으로 정당의 유엔단속가입을 저지하고 조국통일을 앞당기겠다"고 말했다.

한편, 노태우와 민자당에게 보내는 경고장을 통해 송의장은 "노태우와 민자당은 반민주적, 반민중적, 반민주적 정권"이라 전제하며 "자기 잘못을 시인하지 않고 국민기만과 무능부패 정치를 계속한다면 전국민과 청년학도의 지향에 직면하여 파멸의 구렁텅이에 빠질 것"임을 엄중히 경고했다.

20일 오전 10시 20분 전대협 의장 송갑석은 제2학생회관 프레스 센터에서 다시 기자회견을 갖고 "신장호군씨가 달리는 기차에서 뛰어내리게끔한 현정권의 야만적 작태는 결국 광주 민주영령을 또 한 번 죽이는 행위"라고 분노하며 "오늘 23일 평일동 5·18묘역에서 전대협장으로 5일장을 치루겠다"고 밝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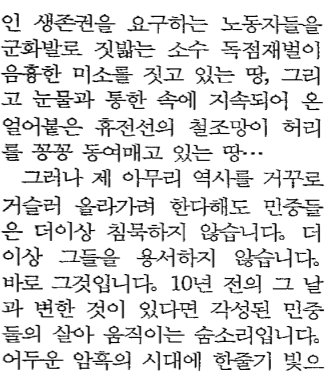
국민대회 출정

○전대협 4기 출범식이 20일 새벽까지 계속됨에 따라 학생들은 20일 아침 매우 지치고 피곤한 모습.

○이날 오후 2시 도청으로 나선 출정 학생들은 학교근처에서는 경찰과의 충돌을 피해 주택가를 통

강철갑이 단결된 우리의 대역

전대협 출범식에서 대독된 임수경대표 서한문



인 생존권을 요구하는 노동자들을 군화발로 짓밟는 소수 독점재벌이 음흉한 미소를 짓고 있는 땅, 그리고 눈물과 땀 속에서 지쳐있는 온 얼어붙은 휴전선의 철조망이 허리를 꿰뚫어 들어오는 땅... 그러나 제 아무리 역사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가려 한다해도 민중들은 더 이상 침묵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그들을 용서하지 않습니다. 바로 그것입니다. 10년 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있다면 각성된 민중들의 살아 움직이는 숨소리입니다. 어두운 암흑의 시대에 한줄기 빛으

로 이 땅을 비추어온 청년학도들의 투쟁입니다. 구국의 강철대오를 조급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욱 자랑찬 열사들의 넋이 분단된 조국의 하늘을 헤매이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붉은 핏자욱은 절이만 가고, 열사들의 넋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민중을 팔아 자신들의 잇속만 채리기에 급급해지는 자들이 만행하게 살아있는 땅, 그 날의 학살자들이 권좌에 앉아 민중을 짓밟고 있는 땅, 기본적

로 이 땅을 비추어온 청년학도들의 투쟁입니다. 구국의 강철대오를 조급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욱 자랑찬 열사들의 넋이 분단된 조국의 하늘을 헤매이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붉은 핏자욱은 절이만 가고, 열사들의 넋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민중을 팔아 자신들의 잇속만 채리기에 급급해지는 자들이 만행하게 살아있는 땅, 그 날의 학살자들이 권좌에 앉아 민중을 짓밟고 있는 땅, 기본적

이 아직도 그날의 영령들이 헤매고 있는 광주의 하늘 아래에서 청년학도들은 역사적의식을 지니며, 언젠가 나그네왔듯이 역사와 민중을 위한 투쟁의 최전방에 설 것을 다짐 하도록 합니다. 구국의 강철대오, 그 내빈 제 발걸음에 저 역사도 벽 한 가슴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십년 전과 변한건 각성된 민중의 숨소리 역사와 민중을 위한 투쟁의 선봉되자

고개들이 5월의 하늘을 바라봅니다. 잔뜩 찌푸린 하늘 저편에 일출진 핏자욱... 두 눈부릅뜬 채 눈 못 감는 열사들의 넋이 분단된 조국의 하늘을 헤매이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붉은 핏자욱은 절이만 가고, 열사들의 넋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민중을 팔아 자신들의 잇속만 채리기에 급급해지는 자들이 만행하게 살아있는 땅, 그 날의 학살자들이 권좌에 앉아 민중을 짓밟고 있는 땅, 기본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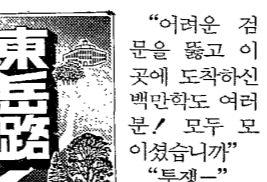
로 이 땅을 비추어온 청년학도들의 투쟁입니다. 구국의 강철대오를 조급도 흐트러뜨리지 않고 더욱 자랑찬 열사들의 넋이 분단된 조국의 하늘을 헤매이며 이 땅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변한 것이 없을 뿐만 아니라 더욱 더 붉은 핏자욱은 절이만 가고, 열사들의 넋은 늘어난 겁니다. 우리의 땅도 10년전의 그 날과 변한 것이 없습니다. 민중을 팔아 자신들의 잇속만 채리기에 급급해지는 자들이 만행하게 살아있는 땅, 그 날의 학살자들이 권좌에 앉아 민중을 짓밟고 있는 땅, 기본적

이 아직도 그날의 영령들이 헤매고 있는 광주의 하늘 아래에서 청년학도들은 역사적의식을 지니며, 언젠가 나그네왔듯이 역사와 민중을 위한 투쟁의 최전방에 설 것을 다짐 하도록 합니다. 구국의 강철대오, 그 내빈 제 발걸음에 저 역사도 벽 한 가슴으로 함께 할 것입니다.

푸르른 오월에

서울구치소에서

임수경



5월 광주

그러나 대치상태가 길어지자 사수대 중 한명이 15·22간의 울음을 가르쳐 주고 시민들은 따라했으며 시민 한명씩 나와 메가폰을 잡고 "학생들! 우리가 도와줄께, 같이 노태우정권 타도합시다"라 외치기도 했다. 한편 일부 시민들은 들을

5월 광주

4만여명의 학생·시민이 모인 가운데 18일 오후 6시 전남대 학교에서 거행된 제4기 전대협 출범식.

거대한 민중을 열망하는 사람들이 동시에 뿜어내는 우리와 같은 함성은 망명포 포여, 아니 구원을 해내는 원혼들을 위로해 줄기에 충분했다.

같은시간 교문앞의 상황은 3층으로 바리게이트를 쳐놓은 사수대들이 경찰과 대치하고 있었고 한때 교내로 침탈한다는 소문에 긴장감이 감돌고 있었다.

이 불리하다고 판단했던 경찰은 병력을 철수하기 시작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모든 사람들은 일순간 환호성을 올렸고 식장은 축제의 장으로 돌변하여 성황리에 출범식을 끝낼 수 있었다.

다음날은 도청으로 향하며 거리를 가득 메우고 "2시 도청", "2시 금남로"를 외치며 뛰어가는 학생들에게 손을 잡아주는 시민과 "아자, 아자 마스크 쓰라오, 내가 속에 파스 없었으께 최후만 싸우 안 매를 거어"라며 마스크를 건네주는 할머니에 눈시울이 뜨거워지기도 했다.

이 모습들을 보며 문득 연상되는 10년전 그날, 시민들에게 땀을 가져다 주고 마주침때마다 애정 어린 눈길을 보내던 이상의 도시 광주.

광주는 진정 '사람이 살고 있는 세상'이었다.

(김영란기자)

노태우의 매국적인 방일을 규탄한다!!

특집 • 격변하는 세계정세와 한반도

북한대남정책의 본질
소련의 대한반도 정책기조와 방향
부시행정부의 한반도정책과 그 모순
남북군축안의 쟁점과 군축운동
남북한 통일방안 비교

이태섭
박영준
전원하
김영환
정대화

노태우의 민정계보 통치술
노태우는 민자당을 어떻게 이끌고 갔 것인가. 민주 공화국을 적절히 분열시키면서 민정계를 기반으로 자기의 입지를 강화해 나갔 것이다. 노태우의 민정계보 운용 전략을 집중해부 한다.

유종원

1990. 6

미국의 정치범들
민족과학을 복원하자
기술종속과 한국경제
여성잡지의 황색이데올로기

권혁범
박성래
김환석
양성희

한국언론과 정보제국주의
한국의 매판변호사들
KBS사태로 드러난 6공의 언론재판전략
8학군의 육성회찬조금
노태우 신뢰도의 현주소
임수경의 향소이유서·우리의 조국은 하나입니다
민자당 내각제 논의의 본질
학생운동사 40 미문화원 투쟁에서 민정당연수원 점거까지
한국전쟁에 참전한 일본군

강준만
천호영
조영
정희상
이상우
정관용
신준영

주: 월간 말 • 정가구독문의 778-8523.4 • 값 3,300원



반미의 활화산으로 일어난 백만학도여!

○... 80년 5월의 광주민중항쟁은 남한변혁운동사에서 엄청난 의...
 ○...미를 가져다 주었다. 엄청난 시민을 살해한 독재정권과 그...
 ○...배후조종자인 미국의 가면을 여지없이 벗겨버린 것이었다...
 ○...자주없이 민주었다는 교훈을 엄청난 댓가를 통해 확인했던...
 ○...것이다. 80년 이후로 이러한 투쟁은 반미투쟁으로, 반파쇼투...
 ○...쟁으로 6월항쟁을 촉발시켰고 침체되어 있던 남한노동자들의...
 ○...각성을 일으키게 했다. 광주는 살아있는 반미의 교과서였으...
 ○...며 그것은 이번 전대협 출범식을 통해 여실히 증명되었다...
 ○...단순히 지역적인 투쟁으로서가 아닌 현정세와 변혁전망을 울...
 ○...바로 내오는 과정으로서 전대협 출범식과 국민대회는 경찰의...
 ○...물리력을 학우대중의 강고한 단결력으로 막아냄으로써 통일...
 ○...단결의 중요성도 같이 보여주었다. 앞으로의 힘있는 투쟁으...
 ○...로 6월의 전민항쟁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5월광주투쟁의 이모...
 ○...저모를 살펴보도록 한다. 투쟁의 현장에서 때로는 부족하고...
 ○...모자라지만 끊임없는 노력으로 극복하고 학우대중의 정론지...
 ○...로 설 것을 새롭게 다짐한다. (편집자)...



◆ "내아들 살려내라"

이철규 열사의 고문장면을 보고 오열하는 열사의 어머니



◆ "저들은 날 이렇게 죽였어"

이철규 열사의 고문장면을 재현한 총재극 중에서



◆ 형제여 부활하소서

조선대에서 거행된 이철규-이내창 열사의 영혼 결연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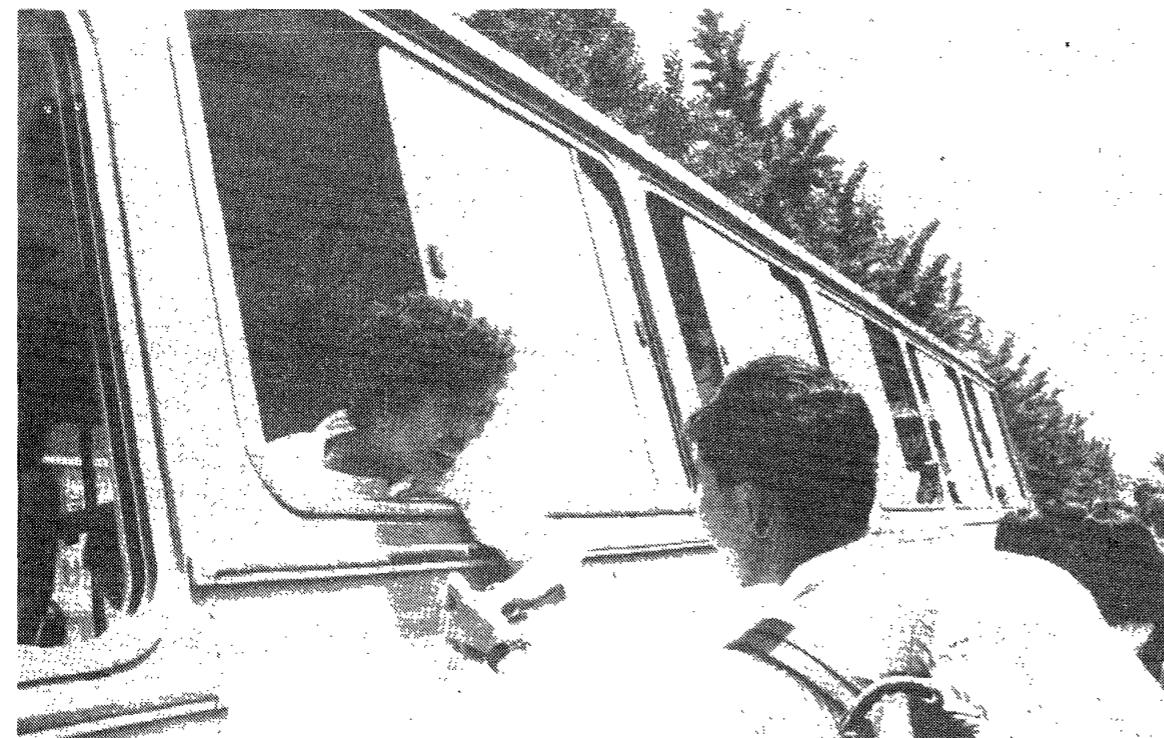
◆ 투쟁은 즐겁고, 아픔담고, 자유로운것

미제 축출, 민주를 위한 일이라면야 어떤 일이든 지...



◆ 자랑스런 동약선봉대

어렵게 어렵게 투쟁대에오 선 자랑스런 우리 학우들



◆ "학생힘내요"

학생들에게 도로를 점거(?)당한 버스안에서 한시민이 격려를 해주고 있다.



◆ "아그들이 우유먹고 힘내그라"

전남대에서 있는 전대협 출범식 사수대들에게 우유를 제공하는 광주시민.

◆ 반미·반편자당의 합성으로

광주로 ... 뜨거운 가슴안고 집결한 백만학도.

생산주체 민중이 문화운동 주인돼야

생활문화 운동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

이시대 우리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남의 문화' '가진자들의 문화'가 이익을 가져다 주는 문화'를 폐기하고 우리 민중이 주인되는 문화를 건설하기 위해서 문화변혁운동과 사회변혁운동은 떼어놓고 행할 수 없는 것이다.

한 시대의 문화는 당대의 사회구조에 따라 형성되고 그것이 발전 변화하면 문화 역시 변화 발전하게 된다.

이미 본지 1045호부터 1047호에 걸쳐 6면지상에서 살펴 보았듯이 우리들의 생활 문화는 우리나라가 그러하듯 제국주의 나라들의 것에 의해 '우리 것'이 철저하게 잃고 죽어가고 있다.

임거리, 바깥거리, 풍속·습관과 같은 거의 전 영역에 걸친 이러한 현상을 극복하려면 문화운동을 해야 하고 이는 나의 삶 주변에서부터 시작해야 하는 것이 지금 형편이다.

그렇다고 막연히 '우리 것'을 찾자라는 주장이나 '민중문화'로 되찾자라는 주장이 '민중문화'로 되찾자라는 노력을 기울이는데 멈춘다면 문화변혁운동에 걸맞은 세 문화변혁운동에 걸맞은 세 문화변혁운동은 온전히 이루어질 수 없을 것이다.

~에 있어서...~와 같이 일 분야에 오르면 우리말이 광범위하게 쓰이고 있고 현재 살아 있는 사람들 절반이 서양문화에 익숙해져 버린 가운데 우리말이 어색하기나 우리말 어휘운동은 너무 허약할 수 밖에 없는 것이다.

이제는 일상생활에서 외래어를 배면 살아 갈 수 없을 만큼 거의 모든 생활용품들이 제국주의의 물질문화의 침범이기에 우리 것만 고집한다고 함은 원시사회의 회귀를 의미하기도 한다.

생활문화 운동과 함께 민족문화보존운동이 빠뜨릴 수 없는 절묘 가운데 하나가 문화를 이룩하고 지켜낼 주체가 자각하면 면 보호하게 된다는 것이다.

국가가 생겨난 이후부터 지금까지 민족문화는 다종다양한 양상을 띠었다.

이 다종다양한 양상은 공통적으로 당시 사회에서 담양했던 일 때 따라 즉 계급에 따라 크게 구별할 수 있었음을 마루 어보면 지금 우리가 찾아야 할 민족문화가 그 중에 어느것인지 모호하다.

또하나 지적한다면 지금 세롭게 이룩할 것은 우리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에게 맞추어야 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이와같은 생활문화 운동의 약점을 극복하는 길은 이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민중



사회모순 간과하는 오류 범하지 말아야 변화된 조건에 걸맞은 문화건설 시급

들의 의식을 마비시키고 있는 저질·퇴폐문화를 극복하고 대다수 근로대중이 주체가 되는 내용의 문화를 이룩하는 것이 된다.

최근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 일제 약세시 전문점, 일본노래의 유행 등은 이전의 포르노비디오와 나이트클럽으로 상징되는 저질 미제문화와 함께 우리의 건강한 생활을 해치고 있다는 것은 지배계급의 방조 없이 불가능한 일이다. 구조적 약점을 극복하는 길은 이전까지 우리 사회를 지배해온 민중

생활에 필요하고 의미심장한 것을 생산하면서도 소비생활과 문화생활의 향락·퇴폐화로 인한 쓸모없는 일에 치중하도록 하는 생활의 이질화를 유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사회를 지배하고 있는 문화는 민중들이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회의 모순에 뿌리내린 채 향락이 판을 치는 방향으로 치달리고 있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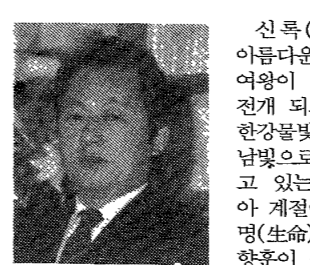
때문에 사회의 구조적 모순에 뿌리내린 그릇된 문화를 격멸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정치적 측면도 아울러 파악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할바다.

즉 문화운동은 사회와의 관련 속에서 파악하고 그 안의 모순과 투쟁하는 내용을 내포해야 하는 것이다.

(정희윤 記者)

달하나 5월의 빛과 그림자

曹勇吉



신록(新綠)의 아름다운 계절의 여왕이 눈앞에 전개되고 있다. 한강물결도 짙은 남빛으로 물들이고 있는 아카시야가 계절이다. 생명(生命)의 온갖 향취가 온갖을 치며 천지(天地)를 진동시키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생명이 가진 근원적인 몸부림이며 살고자하는 욕구이고 뛰쳐오르고자 하는 희망이며 푸른장공을 향한 영연의 손짓이기도 하다.

민중문화는 인류사회의 이룩어오고 문화를 발전시켜온 인간노동의 가치가 보강됨으로써 소모적이고 퇴폐적인 생활문화를 근절할 수 있다.

세화와 건설담당의 주체인 민중은 사회변혁투쟁과 문화운동을 전개하며 과거를 토양으로 근로대중의 성격에 맞게 지급한 것부터 점차 고집한 것을 꽃피워 낼 것이다.

(정희윤 記者)

5월 5.18로 이어지는 퍼빛 향연은 21세기를 열어나는 민족의 '질풍노도'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세시대의 예명(敬慕)을 알리는 신화탄생이기도 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슬기롭고 지혜(智慧)와 용기(勇氣)가 있는 민족이다. 정(情)도 많고 다정다감하며 화평(和平)을 구가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이 시퍼런 남포도를 걸고있을 때 우리네는 인생을 탐구하고 천리(天理)를 논하고 참됨을 논하고 있었다. 물론 바로 널리 널리 퍼뜨리지 못한 위정자들의 우연성도 땅을 칠 일이지만, 결국은 위정의 부정부패가 상호 불신과 비방, 책임전가와 아합으로 인하여 천체의 기우와 선망성에 공해하던 공해로 전락시키고 버렸다. 신록의 계절에 아름다운 산야마다 향연하는 공해소리는 우리네 민족의 정신적 황폐감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다, 강, 호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천체(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인 것이다. 이 기적 속구의 분출은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고자하는 부도덕(不道德), 무감각(無感覺), 무지몽매의 인간행태가 아니겠는가.

이제는 죽어가는 산야(山野)도 살리고 그 속에서 인간성(人間性)이 되살아 나는 일에 합심해야 할때이다. 교정을 보니, 아카시야는 활마라 피고 그 좋은 향기를 뿜어 주지만 지저분한 교정은 정소부자처럼만 맞닥뜨리는 여부적인 동국인의 정서적 불안정을 노출시키는 일은 아니던가 자못해진다.

잘난자든 못난자든 우리는 다같이 참회(懺悔)해야 한다. 자연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깊은 참회의 빛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는 이젠 그 어느것도 지양할 명분을 잃고 만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질고 깊은이를 찾을때다. 책에서, 역사속에서, 자신속에서—

'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외에 어디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 남안 숲이 손짓한다. 동국의 건아들여!

차량행이었다. 5.17, 5.18로 이어지는 퍼빛 향연은 21세기를 열어나는 민족의 '질풍노도'로 그것이었다. 이것은 바로 세시대의 예명(敬慕)을 알리는 신화탄생이기도 한 것이다.

예로부터 우리민족은 슬기롭고 지혜(智慧)와 용기(勇氣)가 있는 민족이다. 정(情)도 많고 다정다감하며 화평(和平)을 구가하는 평화주의자들이었다.

일본이 시퍼런 남포도를 걸고있을 때 우리네는 인생을 탐구하고 천리(天理)를 논하고 참됨을 논하고 있었다. 물론 바로 널리 널리 퍼뜨리지 못한 위정자들의 우연성도 땅을 칠 일이지만, 결국은 위정의 부정부패가 상호 불신과 비방, 책임전가와 아합으로 인하여 천체의 기우와 선망성에 공해하던 공해로 전락시키고 버렸다. 신록의 계절에 아름다운 산야마다 향연하는 공해소리는 우리네 민족의 정신적 황폐감을 반증하는 것이다.

바다, 강, 호수가 죽어가고 있는 것은 천체(天災)가 아닌 인재(人災)인 것이다. 이 기적 속구의 분출은 남을 죽이고 자기만 살고자하는 부도덕(不道德), 무감각(無感覺), 무지몽매의 인간행태가 아니겠는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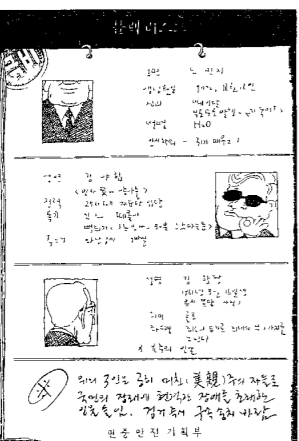
이제는 죽어가는 산야(山野)도 살리고 그 속에서 인간성(人間性)이 되살아 나는 일에 합심해야 할때이다. 교정을 보니, 아카시야는 활마라 피고 그 좋은 향기를 뿜어 주지만 지저분한 교정은 정소부자처럼만 맞닥뜨리는 여부적인 동국인의 정서적 불안정을 노출시키는 일은 아니던가 자못해진다.

잘난자든 못난자든 우리는 다같이 참회(懺悔)해야 한다. 자연에 대하여, 생명에 대하여, 사람에게 대하여, 스스로에 대하여 깊은 참회의 빛을 보지 않으면 안된다. 되풀이되는 시행착오는 이젠 그 어느것도 지양할 명분을 잃고 만다. 흘러가는 강물처럼, 어질고 깊은이를 찾을때다. 책에서, 역사속에서, 자신속에서—

'나만이 나의 주인이다. 나의외에 어디에서 나의 진정한 주인을 찾을 수 있느냐! 남안 숲이 손짓한다. 동국의 건아들여!

살아있는 그림을 그린 사람들

(6) 건강한 시각의 만화가 이희재



그림은 '말'지
6월호의
이희재 만평

만화적인 액스 폭력등 흥미위주로 일관된 통속성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자본주의적 생산특성이 많은 양을 팔아 내는 것에 있는 까닭으로 대다수 만화가들이 상업적인 저급함을

시각들이 독자에게 기질 영향을 고려한다면 현 단계의 만화가 세로로 정비가 요청된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없는 것은 아니다. 대중문화의 올바른 방향을 구

하기 위해 노력하는 많은 손과 관심어린 눈들은 우리 만화가 어둠지만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기존의 작가중에 특히 눈을 끄는 작가가 있다. 중견 작가인 이희재로 우선 서구적인 의도 무정인 만화에서 그의 만화속의 인물들은 대단히 한국적이다. 대다수나 자로 그 선은 보이지 않아 보기에 편

락된 일면이라는 저급한 대중문화인대다가 그런 저지를 자족적으로 받아들이는 현실화에서 이희재의 탁월성은 더욱 돋보인다. 이희재 만화의 가장 큰 장점은 별다른 형식적 꾸밈이나 극적인 갈등의 조작성이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그야말로 담담히 이야기해냄으로써 매우 실제적이고도 건강한 감동을 유발시킨다는 데에 있을

은 그 평범함의 집약성에 있을 것이다. 즉, 평범한 인물들의 공통된 성격과 행동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전형적인 인물이 그의 일상적 보편적 생활 태도를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는 전형적인 사건을 겪는 광경을 보여줌으로써 감동을 유발시키는 것이다. 말하자면 우리는 그의 작품을 읽으면 단순한 평범성을 대하는 것이 아

는 '간판스타'에 와서 절정에 이른다. 우리 만화의 수준을 단번에, 현재로서는 최고로 끌어올린 이희재의 '간판스타'는 걸출한이식의 자본주의적 성장으로 인한 농촌 공동체의 붕괴를 서술로 간 농촌 처녀의 일 시 귀향을 소재로 해서 잘 드러내고 있으며 리얼리즘 만화로서 최초의 가장 커다란 성과라 하겠다. 그의 단편들은 대부분 삶의 현실 한 복판에 자리하는 사회적 인간의 전형형을 성공적으로 형상화시킨 성공작들로 이러한 이희재의 80년대의 성취는 경이로운 것이 아닐까 그것이 하나도 머릿지 않을 때 그리고 그 리얼리즘의 풍부한 세계가 광범위하게 확장됨에 따라 만화사의 진정된 리얼리즘의 승리는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그의 작품으로는 '간판스타' '운수 좋은날' '성질 수난', '꿈' '현상금을 찾는 사나이' '승부' '한잔 하실까요?' '흥미 아웃' '프리 페스 밴' '민들레' 등이 있다.

나라 그것을 집약시킨 '전형'을 대함으로써 그 전형과 우리의 삶을 일치시켜 공감하고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다. 작가의 건강한 시각과 태도·건설한 사실묘사의 적실성 등은 1986년

우리클 바로 읽시다

우리말을 병들게하는
일본말
일본의 말들은 지금까지도 우리말, 우리글에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런 말들을 점차로 우리 말로 고쳐쓰려는 노력을 보여야 할것이다.
피동조동사를 아무데나 함부로 쓰는것은 일본말들의 영향으로 보는데 그 예를 들어 보자.
①지다
◇높이 5m크기로 만들어진 만들어진-만든
◇또 하나는 국제정세의 변화라고 보여집니다
보여집니다-보입니다.
◇양기는 질로 돌려보내져야 합니다
돌려보내져야-돌려보내야
◇도덕성 교육는 가정에서 가장 소중하게 다뤄져야 한다.
다뤄져야-다뤄야
②되다
◇현실은 무관심한 철학은 극복되어야 한다.
극복되어야-극복해야
◇장구 일원화 제검도태야 제검도태야-다시 검토해야
◇국경교과서 제도 마땅히 폐지되어야
폐지되어야-폐지해야
◇되다
◇이러한 점이 극복되어야 합니다.
극복되어야-극복되어야
◇면밀하게 준비되어진 계획 준비되어진-준비된
④말다, 불리하다
◇옛날부터 '말마'이라고 불리는 마을이 있었다
불리는-부리는, 말하는
◇가난과 철저한 대명사로 불리던 동네가
불리던-부르던
◇흔히 어용성으로 불리던 규모로 시정상이던
불리던-부르던

재학생 주소 재정리

현재 소속대학에 비치된 재학생 여러분의 주소와 실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각종업무처리에 불편을 겪고 있어 다음과 같이 재학생 주소를 재정리하고자 하오니 적극적인 협조 있기 바랍니다.

- 1.대 상: 본교 재학생 전원
- 2.등재방법: 각대학교학과에 비치된 학과별 학년별 재학생 명부에 각자주소와 전화번호를 정확히 기재 할 것.
- 3.기 간: '90. 5. 23(수) - 5. 30(목)

교무처장

동약광장은 전통적인 모두에게 열려있는 공간입니다. 주위의 일들에 대해 알고 싶은 사항이 있다면 시소한 일일지라도 주저 말고 동대신문사 동약광장의 문을 두드리십시오. 동약광장에 실리는 광고는 광고료가 없으니 많은 이용바랍니다. (문화부)

동약광장

■전교조 1주년 기념공연
전교조 결성 1주년 기념공연 '참교육의 그날까지'가 '교육문화연구회' 주최로 한양대학교 총학생회 주최, 전교조, 민예총, 전국민중교육추진협의회, 국민연합 후원으로 열려 노래·춤·출·영상·연극의 한판 어울림의 자리가 마련됩니다.
연제: 5월 23일 오후 6시
어디서: 한양대학교 대강당

■중대 연극학과 정기공연
중앙대학교 연극학과는 3학년 분학기 정기공연으로 조지 S. 카프란, 모스하트 원작 '우리집 식구는 아무도 못말려'를 공연합니다.
연제: 5월 23일~25일 오후 7시
5월 26일~27일 오후 3시, 6시
어디서: 중앙대학교 루이스홀

■선무부 연무시범
선무부에서는 축제기간중 여러 학우들이 보는 가운데 연무시범을 보여주는 자리를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많이 오셔서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연제: 5월 31일 오후 3시
어디서: 만해광장

■남성 총 동문회
계정 남성 총 동문회가 열리는 동문들은 빠짐없이 참석해 주십시오.
연제: 5월 30일 오후 5시
어디서: 1차 - 도서관 앞
2차 - 세종문화회관 세종홀

■채플린 영화제
저희 영화공동체 디딤들에서는 '90 동국축전 디딤들 영화제'를 개최, 찰리채플린의 무성 및 유성영화 17편을 상영하게 되었습니다.
민중, 민중영화를 표방한 저희 디딤들은 올바른 영화의 제작을 위해 총력을 기울였지만 영화제작비의 부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습니다. 디딤들 성원간의 논의를 통해 영화제를 개최하여 제작비를 충당하기로 했습니다. 시민의 애환을 그려내는 채플린의 영화를 통해 많은 문화대중들과 공감대를 느껴보고자 하니 많은 관람 부탁드립니다.
디딤들은 항상 민중의 가슴속 깊이 자리잡아 왔다는 영화 창조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연제: 5월 28일~6월 2일 오후 1시, 4시, 6시
어디서: 동국관(L101)
상영작품: Modern Times, A Dog's Life, City Light, The Kid, Pay Day, Gold Rush, Circus, The Great Dictator, Monsieur Verdoux, Lime Light 등 총 17편

■대구 촌사람들 얼굴춤 보임시
연제: 5월 25일 오후 5시
어디서: 만해시비 앞
지킴금: 동문의 사랑하는 만큼
-재동대 대구지역 연합 동문회-

■전산과 총동문회
전자계산학과 동문여러분! 사회각처에서 활동하는 동문여러분을 모시고 아래와 같이 '90년도 총동문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참석 바랍니다.
연제: 6월 2일 오후 3시
어디서: 동국관 5층 (L501) 참가비: 1만원

■현일·애일 동문회
연제: 5월 26일 오후 5시
어디서: 불상당

■제1회 백상농구대회
아마추어농구회에서는 아래와 같이 백상체육대회를 개최합니다.
대상: 전학과, 동아리, 동문회, 학교에서 인정한 단체
연제: 5월 28일~6월 1일
접수장소: 5월 21일~25일
접수장소: 학생회관 앞 및 학생회관 1층 본 동아리방
경기장소: 체육관 및 만해광장
대진표추첨: 5월 25일 오후 5시
참가비: 2만원
1, 2, 3, 4등에게는 상품이 주어집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통일문제 학술세미나
인천대학교 평화통일연구소에서는 국토통일원 후원으로 '독일통일모형과 남북한관계의 전망'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를 개최합니다.
연제: 5월 30일
오후 9시 30분~ 오후 5시
어디서: 인천대학교 대학원관(1412호)

■인문대 체육대회
경주캠퍼스 인문과학대 학생회는 오는 29.30일 양일간 대운동장에서 인문과학대의 단합을 목적으로체육대회를 실시합니다.
경기종목은 축구, 발아구, 축구등이며 민속게임으로 여자 판서춤, 닭싸움, 제기차기등이 열린다.

■자축합니다
지난 5월 17일 여러분의 많은 관심속에서 참문·총합 연합동문회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앞으로 동문회의 무궁한 발전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참문·총합 회장 올림-

■목포 향우회
목포인이 모여 잊혀졌던 옛날을 회상하고자 합니다. 비련네가 그리운 목포인이여, 모임시다.
연제: 5월 25일 오후 5시
어디서: 다화관 입구

■춘계총합
경주캠퍼스 '90년 춘계총합'이 오는 25일부터 27일까지 2박3일간 영일군 신광면동 4개면 13개리에서 영문·고미사·민문연등 16개팀이 참가한 가운데 실시된다.

김진태군 희생... 6월 투쟁 도화선

비대위, 대중투쟁에 한계점 드러내 김군 "나의 희생이 투쟁의 매개되길..."

“해제 민자당, 퇴진 노태우”의 소리가 드높았던 지난 9일 SY-44직격탄에 두눈을 맞아 실명위기에 처한 김진태(사학 3)군이 고려병원에 입원한지

오늘로 15일째를 맞고 있다. 김진태학우 실명규탄 및 책인자 처벌을 위한 비상대책위가 지난 10일 구성되어 명진군(A205) 농성에 돌입한지도 14

일째에 접어들고 있다. 비대위는 그동안 진상규명 및 치료비 마련을 목적으로 규탄하며 대중투쟁을 전개했다. 지난 14일부터 비대위와 결

합한 총학생회 지금까지 비대위 조직활동, 실무추진정동원칙상의 문제만 제기할뿐 비대의 문제를 단적으로 보여준다는 지적을 받고 있으며 이는 김군의 실명사태가 단순한 개인의 차원에만 국한된 것이 아닌 국가권력 차원의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보여준 중앙대의 소극적인 모습에서 한계를 단적으로 보여줬다. 이와관련 사학과 김진태(사학 3)군은 “이번 사건은 전대지인만의 문제가 아닌 폭력정권의 민행임에도 대부분의 학생이 무감각해 있다”며 “가만히 지켜보는 모두가 공범자”라고 주장했다.

학생식당 직영화결실

시식회 음식질-가격 합리화 가능

서울캠퍼스 학부위 설문조사 결과 대다수의 학생들이 학생식당 음식질에 대해 분반을 나타내고있는 가운데 지난 17일 중앙도서관과 동국관앞에서는 학생식당의 학교장직영화결을 위한 시식회가 열렸다. 총 2백50명의 학생들을 대상

으로 실시된 이번 시식회는 열악한 식당운영 개선을 위한 학교장직영화결을 요구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이날 학부위에서 마련한 백반의 경우 평균가격단가는 3백50원이 소요되었는데 현재 인대입자에의해 5백원과 7백원에 판매되고 있는

똥눈으로 보리라, 해방된 세상을!

경주캠퍼스 설립 12주년 기념 ‘임석 자주 대동제’가 10주년 광주항쟁의 정신을 계승하자는 대주제 아래 지난 15일 전야제를 시작으로 지난 19일의 백상연까지 다섯간의 일정을 모두 마쳤다. 그러나 이번 대동제는 예년과 마찬가지로 주최측의

임석 자주 대동제

11부 임석가요제는 학생 4백여명이 참석, 한산하게 진행돼 아쉬움을 남기기도 했다. **『민중의 날』** 16일 낮12시 정문 장승앞에서 ‘길놀이’ 및 5일째 개막공연이 열렸으나 학생의 참여가 저조한 가운데 조율하게 진행됐다. 오후2시부터 북야에서는 ‘민주투사 7종경기’가 열렸는데

取材 落穂

준비부족과 홍보부족 등의 문제점이 드러났으며 도박판까지 등장, 대동제의 올바른 방향정립이 필요함을 여실히 보여 주었다.

대동단결 한마당으로 승화되어야 준비미흡 - 소비적 문화 극복시급

이런 대동제는 ‘제나라 남의 것으로 배양’과 ‘방송을 매고 나섰던 옛것의 산맥’으로 가짜라는 슬로건이네 각종 차별 일정을 설정, 이대부터 자주, 민주, 통일, 평화, 민족해방의 날로 각각 행사가 진행됐다. **『전야제인 지』** 15일 15일은 첫행사로 오후 3시30분과 7시30분 2차례에 걸친 ‘공공연이’가 조장공연이 열렸는데 공중사 특유의 몸짓과 방망이로 장내가 한바탕 웃음바다를 이루기도 했다. 오후5시 ‘石’ 자주 대동제 전야제의 1부 개막식과

"광주총회-복지개선" 결의 사회대등 단대 정기총회 열려

광주총회사수, 복지개선결의... 광주총회사수, 복지개선결의... 광주총회사수, 복지개선결의...

오전11시 과학관앞에서 학생1백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열려 이과대강동동 신축, 문·이과대 도서실 공동사용, 회칙마련 소위구성등이 결의됐으며 광주총회사수대 모교와 이과대 특위 건설등이 제안됐다.

‘비상사국과를 위한 경상대 비상학생총회’가 지난5일 동국관앞에서 열려 경상대대도서관회고, 학교장직영화결의, 광주총회참가결의했다.

노조파업 극적 타결

8일만에 협약내용 일부수정 합의

서울캠퍼스 직원노조가 단체협상 결렬로 파업에 들어간지 8일만에 지난16일 단체협약안이 제13차 협상에서 극적 타결됐다. 이는 노조측이 단체협약의 조속한 체결을 요구하며 지난9일 파업에 돌입한 이래 10일과 11일, 15일 사흘간 10·11·12차 단체협상을 거쳐 지난16일 13차 협상에서 극적타결된 것이다. 이번 타결된 협약안의 주요내용은 스조협에서 추천한직원이사위원회에 참가금이상 직원 1명참여(조합위원장제외)스 학교측은 총무처개편안을 오는

11월전까지 마련, 다시 검토할 것

△직급승진 보장에 관한 개선안을 학교측이 오는 8월31일 전까지 마련, 노조와 협의할 것 등이다. 당초 노조측은 주요협상내용으로 스조협대표가 직원인사위원회에 참여 스조직장장보 직인용을 부활여의상의 직원이 20명명할것을 내세우며 는 의를 해왔으나, 협상에 임하는 학교측의 강경한 대응으로 지난 15일 개편된 12차협상에서 협약안을 대폭 수정·제시해 이번 타결에 이른 것이다.

한의대 보결선거

경주캠퍼스 한의대학생회 비상대책위원회(위원장=박진호·한의학3)는 제8대 한의대학생회 보결선거를 오는 31일 실시한다. 지난 14일자로 제7대 한의대학생회가 한의대내 제반문제 해결의 한계를 이유로 전선사퇴함에 따라 지난21일 오후1시 한의학관(세미나실)에서 확대간부회의를 갖고 선거일정을 확정했다. 보결선거의 세부일정은 오는 25일 임무보급, 28일 학년별 유세, 30일 한의학관앞 전단지에서 합동유세를 갖고 31일 학년별로 선거를 실시하게 된다.



△생활속에 만연한 액션·티페문화에서 탈피, 우리의 문화와 함께 전제가 하나될 수 있는 마당이 돼야할 것이다.

민주를 위한 선율

○...지난 며칠간 광주에서 거행됐던 행사가 참여한 학우들은 광주시내의 투쟁적인 모습에 모두들 감탄...
비상 브레이크를 사용해 감문을 피하는 방법을 자세히 알려주신 의무관, 속도 위반등의 위엄을 무릅쓰고 갓길로 무리 시속 1백킬로가 넘게 달려주시던 택시기사가 저서, 배고프다고 커다란 함치에 손수 짬을 셋이서던 이주머니를 어디서도 볼 수 없던 아름다운 정경(情影)이 연출됐는데...

동학에 도깨비불 출현

○...동학에 난데없이 ‘도깨비불(?)’ 사건이 발생, 학우들의 관심과 우려를 자아내고 있어...
지난8일에는 학생회관 개관후 처음으로 대규모(?) 화제가 발생, 학우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더니 지난5일에는 불상치의 부총장·총무처장 집기가 누락된 원의 비리를 신문에 보도된 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

공무원 기밀누설죄?

○...죄를 밝힌 죄(?)로 이분은 감사가 구속돼 올바른 말을 하는 이들로 하여금 위기의식을 느끼게 했다고...
대구나 감사대상에서의 사각지대인 감사원의 비리를 신문에 보도된 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발부받

비리 감사하는 감사원의 비리 제보는 ‘공무원 기밀 누설죄’

다우기 이번 두 사건은 불장난한 사람 수시직업(?)이 오러부종제 원인규명조차 되지 않아 더욱 답답하지만 이에 본 회전문대 “일 저절러놓고 나 몰라라”하는 것은 5·18광주항쟁 10돌을

있다는데는 이연실적학수 밖에...
한술 더떠 죄목은 ‘공무원 기밀누설’이라...
기밀의 비법무공부등인이 상상을 초월하지 슬그머니 조사가 중단되는등 파행이 상식으로 통하는 작금의 현

5·18의 연속함이 악력자본기가 예후하는 한방주의 상흔에 嚴肅(酒)함으로 주객전도 되었다고...
이에 수 회전문대 “내가 5·18영웅이었다면 가차 없이 저런 늑대에 불벼락 내릴 텐데”라며 혀를 차기도.

(주)시사영어사

시사영어사

TOEIC 강사개설

대학생, 성인을 위한 英語·日語·中國語

TOEFL, TOEFL L.C., TOEFL L.C. 2, TOEFL L.C. 3, TOEFL L.C. 4, TOEFL L.C. 5, TOEFL L.C. 6, TOEFL L.C. 7, TOEFL L.C. 8, TOEFL L.C. 9, TOEFL L.C. 10, TOEFL L.C. 11, TOEFL L.C. 12, TOEFL L.C. 13, TOEFL L.C. 14, TOEFL L.C. 15, TOEFL L.C. 16, TOEFL L.C. 17, TOEFL L.C. 18, TOEFL L.C. 19, TOEFL L.C. 20, TOEFL L.C. 21, TOEFL L.C. 22, TOEFL L.C. 23, TOEFL L.C. 24, TOEFL L.C. 25, TOEFL L.C. 26, TOEFL L.C. 27, TOEFL L.C. 28, TOEFL L.C. 29, TOEFL L.C. 30, TOEFL L.C. 31, TOEFL L.C. 32, TOEFL L.C. 33, TOEFL L.C. 34, TOEFL L.C. 35, TOEFL L.C. 36, TOEFL L.C. 37, TOEFL L.C. 38, TOEFL L.C. 39, TOEFL L.C. 40, TOEFL L.C. 41, TOEFL L.C. 42, TOEFL L.C. 43, TOEFL L.C. 44, TOEFL L.C. 45, TOEFL L.C. 46, TOEFL L.C. 47, TOEFL L.C. 48, TOEFL L.C. 49, TOEFL L.C. 50, TOEFL L.C. 51, TOEFL L.C. 52, TOEFL L.C. 53, TOEFL L.C. 54, TOEFL L.C. 55, TOEFL L.C. 56, TOEFL L.C. 57, TOEFL L.C. 58, TOEFL L.C. 59, TOEFL L.C. 60, TOEFL L.C. 61, TOEFL L.C. 62, TOEFL L.C. 63, TOEFL L.C. 64, TOEFL L.C. 65, TOEFL L.C. 66, TOEFL L.C. 67, TOEFL L.C. 68, TOEFL L.C. 69, TOEFL L.C. 70, TOEFL L.C. 71, TOEFL L.C. 72, TOEFL L.C. 73, TOEFL L.C. 74, TOEFL L.C. 75, TOEFL L.C. 76, TOEFL L.C. 77, TOEFL L.C. 78, TOEFL L.C. 79, TOEFL L.C. 80, TOEFL L.C. 81, TOEFL L.C. 82, TOEFL L.C. 83, TOEFL L.C. 84, TOEFL L.C. 85, TOEFL L.C. 86, TOEFL L.C. 87, TOEFL L.C. 88, TOEFL L.C. 89, TOEFL L.C. 90, TOEFL L.C. 91, TOEFL L.C. 92, TOEFL L.C. 93, TOEFL L.C. 94, TOEFL L.C. 95, TOEFL L.C. 96, TOEFL L.C. 97, TOEFL L.C. 98, TOEFL L.C. 99, TOEFL L.C. 100

개강 6월 1일

수시등록

파고대공원 정문앞 (주)시사영어사 본사 뒤 (273) 4395~7 / 5081~2

독일·소련 전학

전국 대학생 통일논문 현상공모

○ **본제** ○한민족공동체의 형성과 '남북연합'의 실천적 과제
○남북한 평화정착 및 신뢰증진 방안
○대학인의 통일외교와 통일문제 인식의 세 방향
※ 위는 재제택 1

○ **대상** 대학(대학원) 재학생

○ **시상** ○최우수작 1편: 국도통일위원장상 및 부상 100만원
○우수작 2편: 국도통일위원장상 및 부상 50만원
○가작 5편: 국도통일위원장상 및 부상 30만원
○장려작 5편: 국도통일위원장상 및 부상 20만원
※ 최우수·우수·가작 입상자에 대해서는 공산전 연구회 부여

○ **마감** 1990년 8월 30일

○ **분량** 200자 원고지 기준 80매 내외

○ **발표** 1990년 10월중 (개별통지)

○ **모집처** 국도통일원 교육홍보과 교육과 (110-760 서울특별시 종로구 세종로 77)

○ **기타** ○응모원고는 반환하지 않음
○성명과 주소(전화번호), 소속대학, 학과 명기
○논문제출시 계획중명서 1부 첨부
○상세한 내용은 국도통일원 (273) 738-7522 또는 소속대학 통일문제 유관연구소에 문의

국도통일원

시사영어학원

총각뒀편·종로2가 TEL 734-2442

부설 유학국

週3日 투자!

1週日 효과!

시사영어학원에서는 “週3日 강의”로 수강생 여러분의 편의를 도모코져 합니다. 지루한 일주일의 교육과정에서 벗어나 “週3日 강의”의 새로운 선택과 만나 보십시오.

새로운 교육과정은 반드시 새로운 효과를 얻게 해 드릴 것입니다.

“러시아어 강좌개설”

“週/3/日/강의”

“새벽반은 週5日 강의”

● 월 수 금
● 화 목 금

The Korea Herald

英 日 韓 文 日 刊 紙

신문구독신청 ☎ 778-4388, 778-0834

외국어특강

개강 6월 1일

독 해 Korea Herald 사설, Time, Digest 영문예식등 철저한 분석독해

회 화 Practical English, Side by Side American Stream-Line 민병철생활영어, 미국인 회화

영 작 어휘력, 청취능력

기본영작문연구, Vocabulary 22,000 Movie English TOEFL L/C 및 미국어 Hearing, AFKN

TOEFL 아카데미 TOEFL TOEFL, L/C

종합영어 입문·고급

미국교과서영어→기초영어원정→영어능력기초→성문기본영어→성문종합영어

동시통역대학원 입학

외대동시통역대학원 입학을 위한 1월 4시간 집중코스

일 어 일본인회화/박성원(일본어·고급) SCREEN 회화, NHK 필름/동경일본어/비즈니스영어

제2외국어, 불, 중, 일어

지하철 2호선 을지로 입구역 옆 757-0419

코리아헤럴드 외국어학원

시청각 영어회화

◆ 제67기과정 모집 안내 ◆

개 강: 1990년 6월 7일

교육방법: American Streamline English와 Most extensive A/V program을 이용한 시청각 교육 회화과정.

반 편 성: 개인별 테스트 후 수준이 비슷한 수강생들로 한반 12명내외로 반편성.

● 수준테스트는 매일 2회 실시합니다 (11:30AM, 6:30PM)

교육과정: 1월 2시간 주5일(월~금) 수업, 기초부터 고급까지 6개 수준 각 8주과정.

강 사 진: 미국 Harvard 대학출신 교육학 전문의 전일승 Native Speakers.

◆ 수업시간 ◆

7:00~8:45AM 10:00~12:00AM
5:00~7:00PM 6:00~8:00PM
7:00~9:00PM 8:00~10:00PM

● TOEFL 종합반, 러시아어 ●
● 한국어말 (Korean Language Courses)

지하철 4호선 명동역 입구 756-7111

코리아헤럴드 어학연수원

전교조 결성 1주년 기념시 —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조 성 순

(동문, 前단체부고 교사)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노동자 농민 형제들과
이제는 동지가 된 제자들과
어깨걸고 함께 갑니다
이제는 저들의 주구가 되어
허리질린 저 젊은 아수라의 땅
켄터키 후라이드 치킨 만드는 미국은
아름다운 나라라고
앵무새처럼 되어버려 않습니다
노동은 신성하다
농사는 천하의 근본이라고 칩쌀고도
공부 못하면 공장에 들어간다 공부 못하면
흙 파먹고 산다고
거짓부렁하지 않습니다



이젠 이렇게 가르칩니다
공장에서 망치질하는 노동자의 손은
절망과 가난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부조리한 세상 단죄하는 노동해방의 손
입을
이젠 이렇게 가르칩니다
깎기질 써레질하는 농부의 손은
절망과 가난을 움켜쥐는 손이 아니라
독재를 갈아엎고 민주주의의 씨를 뿌리는
생명의 손입을
이젠 이렇게 가르칩니다
부르른 손, 갈라터진 손으로 투망질하는
아무의 손은
절망과 눈물을 건져올리는 현충의 손이
아니라
통일된 세상 건져올리는 투쟁의 손입을



그러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아직도 교과서속 눈뜨고 살아있는 식민주의
아직도 교과서속 서늘뻐한 삼팔천
아직도 교과서속 위장한 채 숨어있는
독재의 껍데기를
술어버리고, 뜯어버리고, 물어버려
마침내 남누리 북누리 어우러져 함께사는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노동자 농민 형제들과
이제는 동지가 된 제자들과
어깨걸고 함께 갑니다



그리하여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아직도 교과서속 눈뜨고 살아있는 식민주의
아직도 교과서속 서늘뻐한 삼팔천
아직도 교과서속 위장한 채 숨어있는
독재의 껍데기를
술어버리고, 뜯어버리고, 물어버려
마침내 남누리 북누리 어우러져 함께사는
우리는 반드시 그곳으로 갑니다
노동자 농민 형제들과
이제는 동지가 된 제자들과
어깨걸고 함께 갑니다

反노태우·反민자당 투쟁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 서울 구치소에 수감중인 9명의 동약인들로부터

일만민족동약인께

들이 옥·해·공 군사작전으로 무자비하게 강제진압되었습니다. 그후 며칠 뒤 인간답게 살고 싶다면 노동자의 단결의 구심인 노동조합을 사랑한다면 한 노동자가 온몸에 신나를 부고 분신했습니다. 바로 주식을 노동자·농민을 비롯한 4천만 민중들에게 떠넘기고는, 미제국주의와 독점자본들의 이익을 철저히 대변해 주는 노태우정권. 이러한 노태우정권이 전태의 두눈을 앗아갔다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노태우정권은 4천만 민중들의 적입니다. 1천만 노동자의 적이고, 백만청년학도의 적입니다. 지금 이시간에도 노태우정권의 민중들에 대한 탄압은 무자비하게 자행되고 있고 이에 맞선 민중들의 투쟁은 치열해 지고 있습니다. 5월 혁명의 정기 가득한 일만민족동약인들여! 지금 즉각적으로 김진태(사학·88)동지의 실명위기 전상규명조사위원회를 일만민족동약인의 이름으로 구성하여 그 책임자를 색출·처벌할수 있도록 합시다.

옥중에서 '단식' 등 투쟁의지 불살라 김진태 동지의 빠른회복과 건강기원

회사 통일의 이형일열사, 인간답게 사는 것이 소원이란 소박한 꿈을 가졌던 이형일열사가 1천만 노동형제의 결을, 4천만 민중들의 결을 떠나가셨습니다. 통일된 조국에서 살고 싶다면 한 청년학생의 꿈을 교문살인으로, 인간답게 살아가 하느 소박한 꿈을 가진 노동자를 분신으로 내모는 보통사람 노태우와 독점자본가들을. 지금의 경제위기가!

하지만 이땅에는 안기부, 보안사, 치안본부등 민중들을 탄압하는 지배기구와 민자당·미제국주의의 버리고 있기에 전상규명조사위원회의 활동만으로는 한계가 분명하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만민족동약인의 이름으로 전상규명조사위원회를 구성함과 함께 학술진흥 노태우정권 타도투쟁에 일만민족동약인의 힘을 모아야 하리라 생각합니다.

“전교조는 필요하며 지켜져야 한다.”

— 해직교사 원상복직추진위원회 심충보선생님과 함께

인터뷰

전국 1천5백여명이라는 사상 유례없는 숫자의 교사가 해직을 당하는 탄압속에서도 끝끝내 꺾이지 않는 해직교사들을 위한 서명운동

“이런 추진위 설립배경이라고 한다면 교육주권과 스승의 날이 들어 있고, 전교조결성 1주년을 맞게 되는 5월의 의미를 되살리며 잊혀져 가는 해직교사들을 다스리던 뒤를

교육현장이 조금 더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대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라며 이번 서명운동의 의의에 대해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은 그들의 경제생활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섰을때 그분들로 인해 교육현장이 조금더 나아질수 있다는 기대가 있기도 한 것입니다”



이 별이었다. 그리던중 지난 19일 이번 추진위원회 대표위원의 중의 한분인 심충보(계성여고 역사교사) 선생님을 만나 그간 활동에 대해 듣게 되었다.

아 보고자 합니다”라고 말하는 심충보선생님은 “해직교사들의 원상복직은 그들의 경제생활의 해결이라는 측면도 있지만 해직교사들이 교단에 다시 섰을때 그분들로 인해

움을 묻자 거의 대부분의 학교에서 노골적인 탄압과 방해가 있었다며 “이런 학교에서는 서명용지를 교감교장이 찾아 버리기까지 했고 교사들에게 서명여부에 대해 O X를

표시하는 명부를 돌려 확인하는가 하면, 매일 교무회의 시간이나 혹은 개인적으로 교사들을 불러 협박 내지 위협하는 등 심로 치사하기 이를테가 없었다”고 귀뜸한다. 그러나 이런 탄압에도 불구하고 지난 19일까지 약 8천명의 교사가 서명, 서울지역 7만여의 교사중 10%가 넘는 교사가 서명한 셈이다. “전교조는 필요하여 지켜져야 한다는 것은 거의 모든 교사가 인식을 하고 심정적으로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전교조 가입’과 ‘해직’이라는 무차별한 탄압을 이길만한 여건이 마련되지 못해 섣뜻 전교조 조합원이 될 수 없는 경우가 허다하다”라고 해직교사들의 심정을 대변하는 심선생님.

그러나 현재 발족된 1천5백명은 그 유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단 일조함으로는 조합원수가 가장 많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을 그야말로 ‘강철같은 대오’로 꾸려나가고 있다. “선생님들이 아이들을 배양하는 것은 산모가 아이를 낳고 교사와도 같고 생각합니다”라는 심선생님의 말은 전교조결성 1주년을 맞는 이 5월에 우리의 교육현실을 다스리던 줄다 버릴히 바라보아야 한다는 아나나 모든 선생님들의 목소리이다. (최윤옥기자)

메이리

▲지난 19일 광주 민중항쟁 10돌을 맞아 금남로에는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학생·시민 10만 여명이 집결하여 추모집회를 가졌다. 민주화 성역으로 일컬어지는 광주 광월동 묘역에는 10년전 그때의 ‘열사들이 아직도 ‘폭도’라는 오명속에서 원혼을 달라고 있다. 불을 보듯 뻔한 당시 발표 명령자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해서는 강안이 변해도 몇 번은 변했을 지금까지 유야무야 해결되지 않고 있다. ▲지금 언론에서는 노태우정권 방위를 앞두고 일왕의 사과운용하며 국민적 관심을 집중시키고 있다. 80년 당시 광주사태를 ‘폭도들의 반란’으로 매도했던 바와 같이 이번 방위 또한 대국민 감정을 자극하며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제일한국인 지위

격상, 아시아판 아파르트헤이트로 불리는 저분남인 철매, 일왕의 과거문제 사과등을 주로 논의하기 위해 방일한다는 언론보도와는 달리 우리는 이것이 한·미·일 군사동맹체제 강화를 주목적으로 하고 있음을 예의 주시한다. ▲5·17군부쿠데타로 정권을 탈취한 5공은 윤용계도 국제금리

본질은폐

인하, 유가하락, 달러화인하라는 80년대 3지호황을 맞아 노동탄압을 자행하며 노동집약적 산업의 전성기를 이루었다. 그러나 6공의 경제는 이러한 호황이 피조하며 침체국면으로 접어들었고 이를 각종 노사분규 탓으로 매도하며 노동운동들을 탄압하며 본질을 호도했다. 경제체제원인의 구조

적 모순을 누구보다 잘 아는 6공 경제팀은 이번 방위를 통해 경제구조의 전환을 시도하려 하고 있다. 또한 이것이 미·일 양국에 혐의하고 승인을 받기위한 사전 포석의 일환은 자명하다. ▲광주문제에 본질적 해결을 위해서는 책임자처벌, 명예회복, 적절한 배상이 뒤따라야 한다. 그러나 광주항쟁 10돌을 맞이하며 6공집권세력은 어쩔 수 없는 5공의 분신임을 확실히 보여주었다. 이번 방위를 통해 또다시 경제부테타를 자행하려는 집권세력은 광주문제 해결에서부터 방위에 이르러까지 계속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 본질을 계속해서 호도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결국 집권능력이 있음을 자인하는 결과임을 예언하는지 그날이 오면 알게 될 스승의 무릎을 파는 것 같아 안타까운 뿐이다. (萬)

민중이

이사람... 정말 개새끼요.

믿을 수가 없어가지

결모양은 멀쩡한데...

????

최경인 (20)

21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경제대국 일본 옆에 있습니까?
통일유럽을 향해 가는 유럽대륙 곁에 있습니까?
아니면 세계의 힘의 대륙 북아메리카 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21세기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들 앞에 있습니까? 아니면 우리 앞에 있습니까?

우리는 그들의 21세기를 기다리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21세기를 우리 손으로 창조합니다.

미원그룹은 생명과학산업, 미래식품산업, 고도의약산업, 첨단화학산업 등의 분야에서 세계에 한국기술 미원테크를 우뚝 세우는, 한국에 세계기업 미원을 우뚝 세우는 우리의 21세기를 창조하고 있습니다.

도전하는 우리 앞에 있습니다.

식품부문 정밀화학부문 무역부문 금융부문 건설부문 축산·비료부문 섬유화학부문

원단발표, 고부가가치 제품을 개발, 세계적인 종합섬유회사로 성장하고 있습니다.

미원화학 건설을 통한 국민건강 생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세계 30여개국에 수출, 세계 최고의 미원로 발돋움하고 있습니다.

3차산업에도 진출하여, 중요로운 미래로 앞장기고 있습니다.

유니온 지향의 도시건설에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축산업계의 품질향상, 농가소득 증대를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원단소재 개발로, 중요로운 삶을 앞서 창조하고 있습니다.

미원 주식회사

(주)미원, (주)미원식품(주), (주)한남화학(주), (주)미원중기(주), (주)미원통상(주), (주)베스트푸드미원, (주)한일계장공업(주), (주)미원수산(주), (주)내소날함성(주), (주)화영, (주)대한투자금융(주), (주)제일농장, P.T. 미원인도네시아, (주)한남개발(주), (주)미원음료(주)